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전공)학위논문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장혜원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The teacher's recognition for the actual administration
of art education in special middle schools with
Hearing impairment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장혜원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지도교수 정은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특수교육)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장혜원

장혜원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정연 인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허유성 인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은희 인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1. 청각장애 학생의 미술교육 5
2.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교육과정 11
3. 선행연구 고찰 18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2
2. 연구도구 23
3. 연구절차 24
4. 자료처리 25

IV. 연구결과

1. 미술과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26

- 2. 미술과 지도방법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 36
- 3. 미술과 교육환경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 51

V. 논의 60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66
- 2. 제언 및 연구의 제한점 67

【참고문헌】 68

【부 록】 71

표 목 차

<표 II-1> 개정된 미술교육과정 중학교 내용체계	15
<표 II-2> 중학교 미술교수학습방법의 고려사항	16
<표 II-3> 중학교 미술평가 고려사항	18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2
<표 III-2> 심층질문 대상자의 특성	23
<표 III-3> 설문지 구성	24
<표 IV-1> 미술교육의 주안점	26
<표 IV-2> 청각장애학교 미술과 교육의 개선점	28
<표 IV-3>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 특수성 반영정도	29
<표 IV-4> 청각장애학교 교과운영 시 교수적 수정이 필요한 부분	30
<표 IV-5> 교수적 수정 시 가장 어려운 점	31
<표 IV-6> 중복장애 학생의 수	33
<표 IV-7> 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실시정도	34
<표 IV-8> 중복장애 학생들의 교육 개선점	35
<표 IV-9> 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수적 수정	35
<표 IV-10> 감상영역 지도 시 미술용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정도	37
<표 IV-11> 감상 영역의 지도 시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은 원인	37
<표 IV-12> 감상영역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	38
<표 IV-13> 표현 활동 시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조절	39
<표 IV-14> 창의성 부족 이유	40
<표 IV-15>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지도 방법	42
<표 IV-16>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지도방법	43
<표 IV-17> 감상영역의 수행 평가 시 활용하고 있는 평가방법	44
<표 IV-18> 감상 및 표현활동의 수행평가에 대한 활용정도	45
<표 IV-19> 감상평가가 원지 못한 원인	47
<표 IV-20> 감상평가가 개선되기 위한 방법	49
<표 IV-21> 감상 평가의 애로사항	50
<표 IV-22> 미술활동 지도 시 가장 필요한 미술자료	51

<표 IV-23> 시각적인 미술자료(부교재)가 필요한 미술영역	52
<표 IV-24> 시각적 미술 교재 제작을 위한 개선점	53
<표 IV-25> 미술실기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준비물 상태	53
<표 IV-26>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미술실기 준비물	54
<표 IV-27> 학생들의 준비물 미지참 원인	55
<표 IV-28> 학교와 학생간의 준비물 부담	56
<표 IV-29> 장애학생미술 관련 현직교사 연수	56
<표 IV-30> 미술 관련 현직교사 연수를 받지 못한 이유	57
<표 IV-31> 연수 프로그램의 도움 유무	57
<표 IV-32>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에 가장 필요한 연수	58
<표 IV-33>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 노하우	59

그림 목 차

<그림 Ⅱ-1> 미술과 총괄목표와 하위목표의 체계	13
<그림 Ⅱ-2> 학교 미술교육의 방향과 학교 급별 중점방향	13

ABSTRACT

The teacher's recognition for the actual administration of art education in special middle schools with Hearing impairment

Jang, Hye-Won

Advisor : prof. Eun-Hee Jeong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urvey research and an experimental instruction were performed by the survey which has had encountered through the nineteen art instructors of students who have hearing impairment in special middle schools over the entire nation for researching in art educational curriculum for students who have hearing impairment, for the method of an art education and for the environmental condition of an art education. In such research, after analyzing Fisher's exact test in surveying nineteen question papers following at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results of the teacher's interview wer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t the teacher's recognition for management of art education in special middle school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main point of the art education is nurturing the capability of improving and creating an environment as well as the characters while developing the noble personality through cultivating an artistic sentiment and creativity by offering an opportunity of self-expression.

Also, to design and improve a teaching-learning system is the teaching methods and the developing of the student experimental programs for the learning procession in a curriculum.

Second, the teacher's educational managements to children who have hearing impairment for their art education are viewing of an art museum, providing them visual aids, producing a experimental programs for children who have hearing impairment in case of their deficiency of the their direct experience and connecting a guidance of teaching methods in student results assessments, writing an appreciation sentence, an artificial language and communication for an art education when teachers evaluate the hearing impairment students' works.

Third, art education environments for the hearing impairment students by the survey research are amelioration of the their educational environments for the chirology explanation programs, for using of the visual educational aids, for preparing an art aids for their education's art daily lessons providing them more their creativity and for the study and training system of teachers for the hearing impairment students.

Therefore,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study of an art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ment students is essential for the parents' recognition and this survey is important for the backing methods of the nation for the teachers' study and training syste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미술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시각적 표현을 통하여 조형의 세계로 창조, 발전시키는 예술의 한 영역이다. 이러한 미술교육은 일반아동 뿐만이 아니라 장애아에게도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크다. 청각장애아들에게 미술은 중요한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비록 표현효과의 수준이 빈약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외부세계와 의사소통을 함으로서 다른 영역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현행 교육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미술교육은 미적체험, 표현, 감상과 같은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대영역은 여러 개의 중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중영역의 하부에는 학년·군별 활동 수준에 적절한 내용으로 중영역의 방법적인 측면을 구체화하여 제시 하고 있다. 먼저, 미적체험 활동은 '자연환경'과 '시각 문화 환경'이 어떻게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생활 속에서 시각 환경의 기능이나 역할을 찾아보고, 미술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한다. 한편 표현활동은 '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과정'의 네 가지 필수 학습 요소로 구성된 영역으로 이러한 네 가지 필수 학습 요소를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영역이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주로 미술경험을 생활과 연결하여 조형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감상활동은 '미술작품'과 '미술문화'라는 두 가지의 필수 학습요소로 구성되어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영역이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익힌 미술 지식과 개념 등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미적체험활동 영역은 표현과 감상영역의 학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직접적 체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을 활용하여 대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각장애학생들의 시각적 예리함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시각 문화 환경의 체험 및 손으로 재료를 다룰 때 느끼는 물성체험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한 감상교육이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종합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도 하다. 한편 감상영역은 미술의 지식과 개념을 익혀서 미술에 대해 이해한 바를 언어화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역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이 표현하기 힘든 자기의 내적의사나 경험을 조형언어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 할 수 있고, 표현활동 또한 제작 활동을 통해 실제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미술활동은 청각손상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시각적 기능이 발달 하게 된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예리한 관찰력과 집중력, 촉각, 청각 이외의 다른 감각능력을 발달 시킬 수 있는 교과이다(이윤이, 1989). 청각장애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문화매체가 개발되어 그들이 다양한 미술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경험시킬 필요가 있다(김윤근, 2003).

미술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과목으로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물론 장애 학생들의 능력을 감안하여 교과 내용을 재구성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청각장애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과정 수정 지침이 들어있지 않는 미술교과 같은 경우는 장애특성에 따른 재구성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청각장애 미술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와 구화를 교육적 상황에 맞게 제시해 주어야 하는 등 미술교사의 역할이 크다(이미숙, 2009; 김윤근, 2003).

또한 청각장애학생들의 시각적 예민성을 최대한 개발 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 면에서 일반학생과는 다른 교수적 수정이 필요하다.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박미혜(2006)와 권영자(2000)는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시각적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박미혜(2006)는 ICT시스템 활용 이후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어려운 미술용어에 대한 이해, 창의력 신장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고, 권영자(2000)는 영상매체를 통한 시지각 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이 청각장애아동의 창의적 회화능력 신장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

한 시각적 프로그램의 적용사례를 통해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의 중요성을 알고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술교과운영이 학교에서 얼마나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선행 연구들을 본 결과 교육적 환경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윤이,1989; 임정규, 2001; 김윤근, 2003). 이윤이(1989)는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교육의 체계적인 전문적 지도와 미술교육시설의 재정비, 그들을 위한 문화매체가 개발되어 교육적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임정규(2001)는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사는 미술 전공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그들의 미술적 소질을 발휘 시키기 위한 전문적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김윤근(2003)은 청각장애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발달가능성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아직도 청각장애 학생의 미술교육이 잠재가능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나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매체가 개발되지 않는 문제점과 미술교육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2007년 개정미술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점차적으로 개정된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교과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 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교사들의 개인적인 배경변인(성별, 경력, 연령, 학교 설립형태, 자격증 종류)에 따라 미술교육의 문제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조사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교과 운영 실태에 주요 쟁점이 되는 문항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미술교과운영, 지도방법, 미술교육 환경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청각장애 학생들의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미술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지도방법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교육환경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

1) 청각장애 학생의 색 인식 특성

청각장애학생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마주치는 색에 대한 시각적인 예민도가 발달되어있기도 하지만, 특정 색에 대한 한계가 있거나 심리적인 특성 등에 의해 심적 불안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그림을 표현 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인 특성을 항상 고려해 주거나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이윤이, 1989; 유혜영, 2010; 김윤근, 2003).

청각장애학생의 색의 선호도에 대해 이윤이(1989)는 건청 아동과 정신분석학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모호할 정도로 그들이 좋아하는 색은 아주 다양하다고 하였다. 대부분 선호하는 색은 어둡고 칙칙한 색이 아니라 밝고 건전하였으며, 색에 대한 개성이 뚜렷했다. 자기가 선호하는 색에 대한 감정을 예민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청각장애아는 색에 대해 정상아보다 예민하며 생활 속에서 색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체험영역의 한계로 일반학생에 비해 청각적 자극을 의미하는 단어에 대한 색채 인지 특성은 부족하게 나타난다. 청각 자극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소리와 연관된 단어를 제시했을 경우 한번도 들은 적이 없는 청각적 단어(시끄럽다, 조용하다)를 색채로 표현한 것에 한계를 보인다고 했다. 이러한 한계는 제한된 감각 자극간의 상호영향이 색채 인지에 영향을 미쳐 청각장애학생은 청각적 단어에 연관된 색을 인식하는 것이 일반학생과 다르다고 하였다(유혜영, 2010). 한편 김윤근(2003)은 청각장애학생은 특정 색채를 싫어하는 등 자아구조가 굳고 고집이 강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체험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청각장애학생의 미술표현 특성

청각장애학생의 미술표현 특성은 시각자료의 지도방법으로 부족한 추상적 개념 학습을 극복해 주어야 한다(이윤이, 1989; 최환호, 1984; 서동희, 2001; 임정규, 2001; 유혜영, 2010). 청각장애 학생의 표현활동에 대해 이윤이(1989)는 청각장애아의 미술표현양식에 대한 조사에서 청각장애학생은 회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다음이 디자인이라고 하였다. 회화영역의 표현양식에 대해서는 야외에서의 사생을 좋아하고 풍경화에 관심이 많으며 자기 주관에 따라 그림에 몰두하고 대체로 주의 집중력이 강하지만 그림 감상의 기회가 적어 표현력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활동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최환호(1984)는 이해력과 추상적 개념 학습의 부족으로 청각장애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주제가 매우 단순하고 주제 내용이 빈약하게 표현된다고 하였다. 또 서동희(2001)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학생은 자유화 주제에서 주제의도가 분명치 않고 시각적이고 경험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표현한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학생에 비해 상상력은 잘 나타나지 않고 아동의 그림에서 주제에 관해 청각장애학생들은 지시적인 주제보다는 비지시적인 주제에 그 표현의 어려움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런 추상적 개념 학습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시각자료의 제시와 표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어야 한다. 임정규(2001)는 청각장애학생의 학습 이해력에 대한 조사에서 칠판에 판서하고 수화로 설명할 때 보다 멀티미디어와 슬라이드로 관련 그림을 제시할 때 청력손실로 인한 부족한 능력을 시각자료를 통해 충분히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언어와 추상적인 사고력이 지체되어 있으므로 부가적인 설명을 하여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필름으로 필요한 도판들을 제작하여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유혜영(2010)은 추상적인 개념 학습에 대한 곤란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개발 시켜주는 것 또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보고 만지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기능 향상에 유효하며 언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미술활동에 있어서 일반학생과 다를 바 없는 보편적인 특성과 청각손상으로 인한 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사들이 긍정적이다(김윤근, 2003; 임정규, 2001; 이윤이, 1989; 김동연, 1994). 청각장애학교의 교사들은 대부분 미술은 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가능성을 인정하고 흥미 있어 하는 과목이라 하였다. 꼭 미술시간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미술을 응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 김윤근(2003)의 연구에 의하면, 불안을 미술교육으로 다소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위 환경과의 고립에서 겪는 불안과 좌절감 등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청각장애학생에게는 미술활동이 가장 적합한 교육일 것이다. 청각장애아의 미술활동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술적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험영역을 늘려야 하며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적 자기표현에 있어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미술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임정규(2001)는 청각장애아들의 장점인 시각 발달이 뛰어나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미술적 소질이 풍부하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데는 모순이 없지 않으나 최소한 건청아 못지않은 시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술 외적인 요소를 성장시키고, 정서안정, 지적발달만 보완된다면 그들의 미적 표현능력은 건청아 보다 더 탁월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청각장애학생들의 장애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시지각과 미적체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청각장애학생의 미술표현의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윤이(1989)는 청각장애가 비록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상아와의 접촉이 적어 정신적 성숙이 어렵고 인격 형성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왕성한 표현욕구와 그들의 뛰어난 시각적 잠재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전문적인 미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그들의 미술 분야에 대한 성장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Lowenfeid(1975)는 청각장애 학생의 미술교육은 정상아와 다를 바 없으며 청각장애가 미술표현에 직접적인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미술교육은 주위 환경과의 고립을 극복하고 정서적 긴장의 돌파구 역할과 고도의 자기실현을 나타낸다고 했으며 미술활동은 청각장애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이윤이, 1989, 재인용). 또 김동연(1994)은 청각장애로 인해 주위 환경과의 고립에서 겪게 된 좌절감 등의 억압된 심리상태를 말과 문자로 표현하기 힘든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자기의 내적의사와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육이 미술교육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미술교육활동은 청각손상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정서·심리적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시각적 잠재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는 점과 자아실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청각장애 학생의 미술지도방법

청각장애 학생의 미술표현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지도방법으로 색 표현과 창조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도방안과 회화지도에서 종합적인 단계별 지도방법들이 있다.(이윤이, 1989; 임정규, 2001; 권영자, 2000.) 이 방법들은 단계별로 창의성에 근본을 둔 지도를 해야 하며, 미적 자각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위주의 미술 활동을 강조한다. 먼저 청각장애학생의 색 표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한 미술 지도방법(이윤이, 1989)으로 다음과 같은 지도단계가 있다. 첫째 색채혼합의 구체적인 예를 실기로 이해시켜 색깔을 다양하게 쓰도록 지도한다. 둘째, 색채대비는 생활과 관련지어 이해시켜 색채구성이 조화 있게 표현되도록 지도한다. 셋째, 이론지도에 많은 작품과 자료를 동원해서 미술표현의 기술적인 면을 정확히 이해시켜 표현력 향상에 힘쓴다. 넷째, 일반아동의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많이 주어 자신의 미술표현의 미숙한 면을 스스로 생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

청각장애 학생의 창조성을 보완하기 위한 미술교사의 지도방법(임정규, 2001)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며 중요한 창조성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한한 상상력이 개발되도록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창조적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둘째 미술이라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대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사고를 가지고 기능적인 구도, 색을 쓰는 장법 등을 익히도록 한다. 셋째 아동의 학습 능력에 따른 단계별 지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회화지도의 단계(권영자, 2000)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 아동들이 가장 먼저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 다양한 ‘선’경험을 통하여 느낌이나 생각, 상상력 등을 경험하게 한다. ‘선’ 하나만을 가지고 대부분의 형태가 가능하며, 곡선·직선으로 변형시킴으로 다양한 ‘변화’와 ‘통일’을 경험하게 되고, ‘리듬감’혹은 ‘운동감’을 맛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물체의 구조와 구성, 전체와 부분의 관계와 같은 요소를 알아볼 수 있는 탐색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회화지도에서는 ‘색’은 아동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여 한 가지 색을 사용했을 때와 두 세가지 또는 여러 가지 색의혼합, 중첩 사용 등을 통해 발생하는 변화를 발견하게 한다. 이러한 표현활동을 통해 아동들에게 극적인 효과와 같은 신비감을 제공해 주어 시각적인 색채감각을 기를 수 있고, 또한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선명한 색과 어둡과 흐린 색을 대조되어 나타내는

풍경화와 정물화에서 색의 적절한 사용은 색의 어울림과 어울리지 않음을 통해서 조화와 부조화를 배울 수 있게 한다. 셋째, 화면 구성력을 통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경험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풍경화나 정물화의 화면 배치에서 삼각형 구도와 수평선 구도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구도 안에서의 조화 있는 배치는 화면 구성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회화지도는 학생들에게 회화활동에 쓰이는 도구, 매체, 기법 등이 시각적이고 기초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회화지도에서 재료는 창의적인 표현의 필수적인 요소로, 다양하게 경험함으로써 주제에 맞는 재료를 선택할 수 있고, 의도한 내용을 자유로운 기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와 함께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미술교육에서는 심리적 특성과 개념학습을 할 때 표현의 기회와 다양한 경험이 제공 되어야 한다(박미혜, 2006 ; 박선영, 2008). 청각장애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시각장애 보다도 감정 장애가 오기 쉬우며 그들의 그림 표현은 때때로 고립감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경험을 제공하고 경험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서 그들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발산시킬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미술활동의 계획에 있어서는 모방학습을 중요시하여 구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이 다른 급우들의 미술활동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더 많이 일어나므로 이런 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술활동 계획 시 구체적인 개념을 이해시키고 습득한 후에 미술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이런 개념 학습을 하기 앞서서 청각장애 학생들의 일반화 경향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한다. 청각장애 학생들이 미술표현 활동에서 보여주는 일반화 경향으로 미술 시간만 되면 때번 쟁반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농아벽(deaffism)이라는 행동특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을 적절한 일반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념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시가 학습에서 제시되고, 교사와 학생이 밀접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이미 배운 어휘 등의 개념을 강화하는 미술 수업계획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박미혜, 2006). 이런 심리적 특성과 개념학습에 있어서 고려사항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미술수업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환경적인 변인들까지 고려하여 미술 수업상황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의 잠재

적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시각적인 기능이 발달하여 일반인보다 예리한 관찰력과 집중력 측각 발달의 감각능력이 탁월하여 이러한 능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언어적인 정보처리가 일반인보다 떨어지므로 이론 수업에 있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셋째, 수화를 사용한 다양한 비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맞은 환경을 구성하여야 한다. 넷째, 문화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박물관을 자주 이용하고 청각장애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확충 및 보안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각장애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기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여섯째, 청각장애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전문적인 교사양성 및 다양한 연수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박선영, 2008).

이상과 같이 청각장애 학생들의 미술교육 시 심리, 언어, 매체, 문화적 연계성, 미술표현 특징, 미술표현 가능성 등 많은 변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부족한 언어적 정보처리 능력으로 인한 교육적 배려사항들이 미술수업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 학생들의 미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김동연(1994)은 다음과 같은 미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술교육의 한 방편에서 빨리 탈피해 미술교육의 특징에 맞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둘째, 미술교육은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미술 전담 교사가 필요하다. 셋째,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을 더욱 깊이 연구하여 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술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미술교과서가 필요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 자료도 청각훈련, 호흡훈련과 관련된 자료는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섯째, 예술적 감각을 개선시킬 수 있는 풍부한 학습 자료의 개발과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청각장애학생의 학부모 교육을 해야 한다.

청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 환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미술 교구 및 교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임정규, 2001), 졸업 이후의 미술을 계속해서 접할 수 있도록 문화매체의 발달과 부교재 및 미술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이윤이, 1989; 김윤근, 2003). 청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 환경은 정상아들이 문화매체로부터 미술적 표현에 필요한 경험을 얻게 되어 지식과 경험 및 교양이 성숙되는 것처럼 청각장애학생들도 그들을 위한 문화매체가 개발되어 교육적 혜택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아 미술회’나 ‘청각장애아 미술학교’ 등을

만드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적으로 미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이윤이, 1989). 그리고 청각장애 학생에 맞는 미술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며 부교재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며, 부교재는 청각장애학생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과 짧은 시간에 교사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교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미술실은 교실 2칸 정도의 크기가 마련되어야 하며 미술재료나 도구를 보관할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준비물은 학교에서 미술실기 재료를 좀더 풍부하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김윤근, 2003).

2.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청각장애 학교의 미술교육과정은 일반학교의 것을 그대로 준용하되, 청각장애 학생의 요구, 능력,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 미술수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최소 수업시수 확보와 중학교 미술 수업시수 배정을 위해 학년별 주당 미술 수업 시수는 중학교 1·2학년이 주당 1시간, 중학교 3학년은 주당 2시간으로 학교 급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7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미적 인식능력의 체계적 육성, 시각문화 학습의 중요성 강조, 교육과정의 명료화, 미술 교과 내외의 통합적 경험의 수용 등 개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다음과 같이 중점을 두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1) 성격

미술교육의 의의와 목적으로 미술 교과 교육은 미술의 다양한 체험, 표현, 감상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나타내며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술의 체험, 표현, 감상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목표와 각 영역별 교수·학습 방향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첫째, 미적체험의 목표는 생활 속에서 미적 감수성과 미의식의 체험을 확대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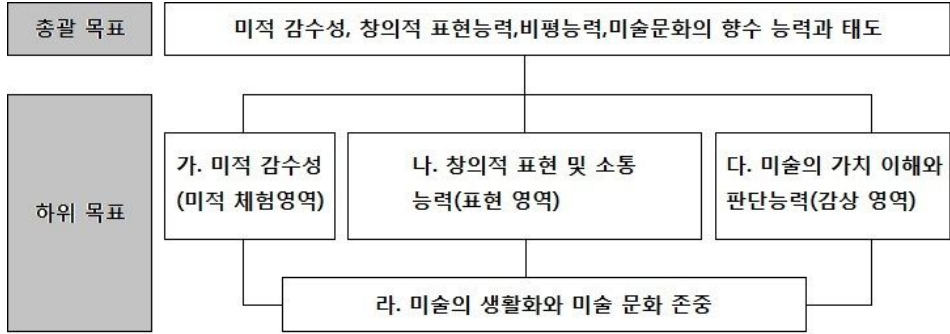
씨 문화적 가치와 정보, 환경, 생명 등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교수학습 방향으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연과 시각 문화 환경에 대한 탐색, 탐구, 이해, 판단 등의 학습활동이 전개 되도록 되어야 한다.

둘째, 표현영역의 목표는 다양한 동기 유발을 통해 표현 의지를 북돋아주고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의 표현 요소와 표현 계획, 수행, 반성 등의 표현 과정, 표현의 확장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과 자기 주도적인 표현 활동으로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교수학습 방향으로는 표현매체와 방법에 대한 감각과 기능, 표현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해 나가는 조직적인 능력을 기르게 한다. 또 표현 활동과 다른 영역을 관련짓는 적용능력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감상영역의 목표는 미술 작품을 비롯하여 시각 문화 환경에 대한 미적 반응이나 판단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며, 문화유산을 미학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길러 전통 미술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한다. 교수학습 방향으로는 인지적 접근을 통하여 미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비평적인 언어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미술을 문화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미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2) 목표

총괄목표는 미술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능력, 비평능력을 기르고, 미술문화를 향수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으로 구체적인 하위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대상과 현상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둘째,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총괄목표와 하위목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 [그림 II-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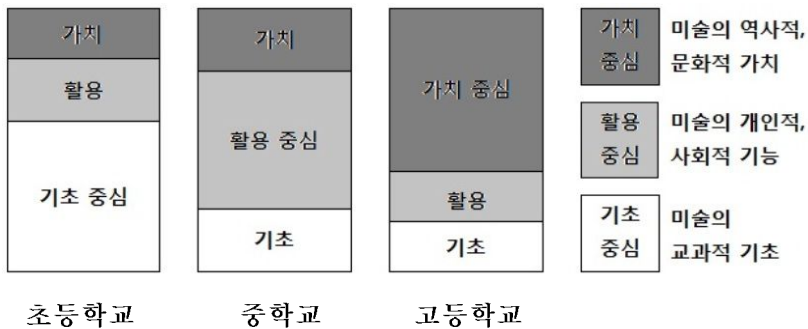


[그림 II-1] 미술과 총괄목표와 하위목표의 체계

출처: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미술과), 2008, p202.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목표는 학교 급별 구분 없이 총괄목표만 제시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성취해야 할 목표가 한 가지 수준으로 되어있어서 학교 급별로 목표가 차별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의 총괄 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초등학교에서는 학년 군별,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학교 급별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목표의 수준을 차별화하였다. 학교 미술교육의 기본방향으로 ‘기초교육’, ‘활용교육’, ‘가치교육’의 세 가지를 제시하여 청각장애학교 중학교에서는 활용교육 중심으로 학교 급별 중점방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미술교육의 방향과 학교 급별 중점방향은 [그림 II-2]와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그림 II-2] 학교 미술교육의 방향과 학교 급별 중점방향

출처: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미술과), 2008, p203.

학년 군별 목표는 총괄 목표 하부에 제시한 세 가지 영역별 목표를 학년군별 내용과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청각장애학교 중학교 목표는 활용중심 교육으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속에서 미술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이해한다. 둘째, 목적과 의도에 맞게 표현을 계획하고 적용한다. 셋째, 미술 작품을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미술 문화의 의미를 이해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3) 내용

미술과의 내용구성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 분량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 다음 <표 II-1>은 개정된 미술교육과정 중학교 내용체계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새 교육과정에서는 미적체험 영역은 표현과 감상 영역의 학습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면서, 직접적 체험활동 자체를 강조하는 영역이다.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는 미적체험 영역의 필수학습 요소를 ‘자연미’와 ‘조형미’ 중심으로 구성하였지만, 새 교육과정에서는 ‘자연 환경’과 ‘시각 문화 환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현재의 이미지 범람 시대에는 시각이 우선되지만 다른 감각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대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체험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적체험에서는 손으로 재료를 다룰 때 느끼는 물성 체험에서부터 동식물과 들, 산 등 자연환경의 체험,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물, 조각, 건축, 광고, TV, 영화, 비디오, 컴퓨터 게임 등 시각 문화 환경의 체험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루어 수업을 함으로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다른 감각을 활용한 미술체험을 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표현영역 네 가지 필수 학습요소인 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표현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내는 영역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필수학습요소인 ‘표현재료와 용구’를 ‘표현방법’에 통합하고, ‘표현과정’을 구분함으로써 ‘주제표현’, ‘표현방법’, ‘조형요소와 원리’ 그리고 ‘표현과정’의 네가지 필수 학습 요소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의 표현영역이 구성되어 청각장애학생들이 창의적인 미술 제작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감상영역의 필수학습 요소를 ‘미술작품’과 ‘미술문화’로 선정하였다. 제7차의 ‘서로의 작품 감상’과 ‘미술품 감상’이 ‘미술작품’으로 통합되

있으며, 제7차에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시작되는 ‘미술문화’부분을 초등학교에서부터 필수학습 요소로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감상 활동을 지식적인 부분과 태도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도록 한 것이다. ‘미술작품’은 미술을 개념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미술작품’에서는 미술작품, 미술가, 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미술의 지식과 개념을 익혀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미술적 의사소통 능력과 개념적 이해 교육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미술문화’에서는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문화적 대상이나 현상 등을 지식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청각장애 학생들의 미술적 태도를 생활 속에서 키울 수 있는 영역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표 II-1> 개정된 미술교육과정 중학교 내용체계

출처: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미술과), 2008, p208

영역	중학교	
	7,8,9학년	
미적 체험	①자연 환경	자연 환경과 시각 문화 환경의 조화에 관하여 이해하기
	②시각 문화환경	시각 문화 환경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표현	①주제 표현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②표현 방법	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③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④표현 과정	표현 의도에 알맞은 표현 과정을 계획하기
감상	①미술 작품	미술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하기
	②미술 문화	미술 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4) 교수·학습 방법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의 개정안에 따른 교수 학습 방법은 제시 방식 면에서도 ‘교수·학습의 계획’, ‘교수·학습 방법’, ‘내용 영역별 지도’의 하부 항목을 보충하여 제시하였다. 청각장애학교 중학교 미술교수·학습 방법의 고려사항은 다음 <표 II-2>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수·학습계획은 미술 수업 전반, 학습 목표 설정, 학습 내용 선정,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 등 수업 계획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 하였고, 교수·학습방법은 학습 목표, 새로운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수

<표 II-2> 중학교 미술교수·학습 방법의 고려사항

출처:교육인적자원부. **미술과 교육과정**.2007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p10-11

교수· 학습 방법	고려 사항
가. 교수 학습 계획	①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② 학습 내용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각 영역별 학습 내용 간의 관련성, 학년 군별 학습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③ 학습 과제의 성격,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와 방법, 사전 지식의 활용, 학습 활동, 피드백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④ 학습 내용과 방법 및 수업의 시기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특수성, 행사, 계절, 학생 수, 시설 및 용구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한다.
나. 교수 학습 방법	① 영역별 학습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한다. ② 학생과 교사의 상호 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 강의, 개별 작업 및 협동 작업, 게임, 현장 견학, 극화, 토론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③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발문과 개방적 질문을 적극 활용한다. ④ 정보 통신 기술(ICT)과 사진, 영상,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⑤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의 미술 자료와 문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 내용 영역 지도	1. 미적 체험 ① 생활 속에서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통하여 미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② ‘표현’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③ 교과 간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미적 체험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2. 표현 ①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활용한 발상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표현 동기를 높인다. ②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가 표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한다. ③ 표현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환경 문제를 고려한다. ④ 표현 재료와 용구의 선택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안전에 유의한다. ⑤ 서로의 작품 감상을 통하여 표현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다음 활동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⑥ ‘미적 체험’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⑦ 교과 간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표현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3. 감상 ① 학습 내용과 관련된 미술가, 미술 작품, 미술사 관련 정보와 일화 등을 활용하여 감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지도한다. ② 다양한 감상 관점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게 한다. ③ 작품은 성, 인종, 민족, 지역, 시대, 양식별로 비교 감상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④ 미술 용어를 이해하고, 감상문 쓰기, 발표 및 토론 등에 활용한다. ⑤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가능한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한다. ⑥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전통 미술 자료와 문화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⑦ ‘미적 체험’ 및 ‘표현’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⑧ 교과 간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감상을 확장할 수 있게 한다.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효과적 발문이나 새로운 매체 활용과 관련된 교수 전략을 제시하였다. 내용 영역별 지도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 요소의 지도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을 제시 하였다.

특히 다양한 매체와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 부분은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제한된 청각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내용 영역별 지도는 각 영역별 교과 간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으로 지도하여 청각장애학생들의 종합적 미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 방법이다.

5) 평 가

평가자로서 미술교사는 미술과 교수·학습 계획과 실천능력, 이와 연계된 평가계획과 평가방법 선정, 평가도구 개발 능력, 평가 수행 과정에서의 피드백, 결과물에 대한 판단. 평가 결과에 기초한 학생,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평가결과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피드백 할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평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평가계획,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내용영역별 평가에 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평가계획'은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학습자 능력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에서 고려 할 사항을 제시하였고, '평가방법'은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가 결과 활용'은 평가 결과의 활용 목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내용영역별 평가'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에 새롭게 포함 된 내용 요소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청각장애학생들의 미술적 능력은 과정 및 결론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인별 성장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평가 고려 사항은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중학교 미술평가 고려사항

출처:교육인적자원부, 미술과 교육과정.2007,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p11-12

미술 평가	고려사항
가. 평가 계획	① 평가 목표와 내용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을 근거로 설정하되,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고려한다. ② 평가 내용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영역 내에서도 학습자의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 ③ 평가 기준을 학습자들에게 미리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평가 방법	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학습 태도, 과정 및 결과를 균형있게 평가한다. ② 평가 방법은 평가 목적과 평가 내용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며,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가 높은 평가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③ 지필 평가, 관찰법, 감상문, 토론법, 연구보고서법,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실기 평가, 감상문,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④ 수행 평가는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실시한다. ⑤ 실기 평가의 내용, 과제, 매체 등은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되, 되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평가 결과 활용	①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시각 현상에 대한 감수, 반응, 관찰력, 발표 및 토론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한다. ② ‘표현’ 영역에서는 발상과 구상력, 재료와 용구의 선택과 활용력, 매체와 방법의 활용력, 조형 요소와 원리의 적용력, 창의성, 표현력, 심미성, 태도 등을 평가한다. ③ ‘감상’ 영역에서는 미술 작품에 대한 감수, 반응, 지식, 이해, 적용, 비평 능력, 발표 및 토론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한다.
라. 내용 영역 평가	① 평가 결과를 누가 기록하여 개인별 성장 수준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② 평가 결과는 성취 수준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 정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③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판단하고,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3. 선행연구고찰

본 연구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청각장애미술교육 관련된 논문을 발췌하여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실태조사와 특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교의 미술실태조사 및 청각장애학생의 미술지도방법을 고찰하였다.

청각장애학교 미술교과에 대한 실태조사는 김윤근(2003), 임정규(2000), 이윤이(1989), 장해경(2007)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후, 청

각장애학교 중학부 미술과 교과 운영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윤근(2003)은 ‘청각장애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적연구’에서 미술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청각장애학생의 독특한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편성이 미비하며, 모방적인 미술 교육과정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수화능력등과 같은 전문성신장을 통해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였다.

임정규(2000)는 ‘청각장애아의 미술교육의 현황과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실험 학습을 통한 청각장애아의 특성에 맞는 회화학습지도방법을 통해 일반학습 지도방법을 적용한 경우보다 미술학습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전문적인 지도방법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학교에서 미술교사가 미술전공자가 배치되어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맞는 미술지도방법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윤이(1989)는 ‘청각장애아에 대한 바람직한 미술교육방안의 모색:(전국 농아학교의 미술교육환경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미술교육적의 전문적지도계가 미흡하며, 문화매체의 개발과 학교를 졸업하고 미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각적 언어개발로 청각장애학생과 학부모와 교육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장해경(2007)은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으로서 공예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서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실기능력을 갖춘 교사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공예 관련 직업으로 사회에 취업이 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한편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특수학교 미술교육과 관련하여 제고해야 함을 알 수 있는 선행연구로 김영린(2003)은 시각장애학교를 중심으로, 이승환(2007)지체부자유학교 중학부를 중심으로 미술교과 운영실태를 연구하였다. 대부분 감각장애 학교에서 미술교육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은 미술교육환경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및 기자재의 한계와 교사의 지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각 장애에 맞는 지도방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점들을 말하였다.

그리고 김유리(2005), 이지윤(2006), 최향숙(2007)은 정신지체 특수학교를 중심으

로, 2004(김정순)은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미술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되었다. 정신지체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미술교과 실태조사에서는 미술전공자가 아닌 교사의 지도가 대부분이어서 미술교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서 미술실기물의 구비정도가 낮아 열악한 학습 환경을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말하였다.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미술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을 연구한 김정순(2004)은 장애아동 미술교육을 위한 지침서 및 프로그램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습 환경의 열악과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기회 부족 등을 말하였다. 또한 미술교육의 보편적 특징을 나타내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과 실태조사로는 한기민(2003)은 중학교 미술 수업실을 중심으로, 신묘숙(2007)은 일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기능위주의 미술수업으로 창의력신장이나 미술체험과 감상영역을 고르게 지도하지 못하고 표현위주의 미술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교과운영의 문제점들을 말하였다.

현황분석을 통해서 대부분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편성 및 교육방법의 전문적인 체계가 미흡하다고 하였고, 수화와 관련된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미술교과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의 표현활동 미술지도방법에 대해서는 이미숙(1990), 권영자(2000), 박미혜(2006), 박정술((2004), 최환호(1984)등의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미숙(1990)은 ‘청각장애아의 미술과 학습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청각장애아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방법에 따른 교육이 일반 학습지도방법을 적용한 경우보다 학습효과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영상매체나 도예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프로그램방법을 적용한 권영자(2000), 박미혜(2006), 박정술((2004)의 연구에서는 영상매체 및 도예활동 프로그램을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에 맞게 제작되었을 때 발상학습 및 작품제작 활동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력 신장에도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최환호(1984)는 청각장애아 회화 특징분석으로 청각장애학생의 미숙한 회화를 알고 개성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지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의 감상활동 미술지도방법은 박선영(2008)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술 감상지도방법으로 정순은(2009), 조은성(2009)의 연구가 있었다.

박선영(2008)은 ‘DBAE 이론에 기초한 청각장애학생의 미술과 지도 모형 개발’에

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감상지도 방법으로 미술사, 비평, 미학, 제작을 통한 미술지도방법을 통해 이론과 감상이 밀바탕이 되는 구체적인 이해중심 미술감상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반학생을 위한 감상교육방법인 정순은(2009)과 조은성(2009)의 연구에서는 체험위주의 미술관 활용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의성, 사회성, 공동체 의식 및 전인교육으로서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이밖에 청각장애학생의 미술치료를 통한 효과 연구로 김미순(2007), 서동희(2001), 추현주(2007)가 있었다. 미술치료를 통해 청각장애 학생들의 자기표현, 사회적 상호작용의 효과와 정서함양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2007년 개정 미술교육과정을 적용한 시점에서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나 교사들의 인식에 관해 연구된 논문이 없었고, 김윤근(2003)의 청각장애학교 미술교과운영에 대한 연구 이후 청각장애학교에서 보여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변화되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교사의 개인적인 변인별(성별, 연령, 경력, 학교설립형태, 자격증)로 미술교육실태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교과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하여 전국 청각장애 중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미술교사 19명을 대상으로 우편과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9부(100%)를 회수 하여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7	36.8
	여	12	63.2
	합계	19	100
연령	40세 이하	8	42.1
	41세 이상	11	57.9
	합계	19	100
경력	5년 미만	3	15.8
	5년이상~10년미만	3	15.8
	10년 이상	13	68.4
	합계	19	100
자격증 종류	특수교육전공	8	41.2
	일반중등미술+특수교육전공	11	57.9
	합계	19	100
학교 설립 형태	국,공립학교	5	26.3
	사립학교	14	73.7
	합계	19	100

<표 Ⅲ-1>와 같이 성별 분포결과 여자 교사(63.2%)가 남자 교사(36.8%)보다 많았다. 연구 대상자는 41세 이상(57.9%)인 교사와 교직경력이 10년 이상(64.8%)인 교사가 많았다. 미술교사 자격증 종류는 미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 ‘일반중등미술+특수교육전공’ 교사들(57.9%)이 많았고 학교 설립형태는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미술교사는 5명(26.3%),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14명(73.7%)으로 나

타났다.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지에 대한 χ^2 (피셔의 정확검증 Fisher's exact test)검정을 실시한 결과 변인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 5개에 대해 보다 상세한 실태를 알아보고자 교사의 학교 설립형태, 연령, 자격종류, 청각장애 유무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교사 4명을 선정하여 심층 질문을 실시하였다. 심층 질문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 III-2>과 같다.

<표 III-2>심층 질문 대상자의 특성

구분		해당 교사
연령	40세 이하	A
	41세 이상	B,C,D
학교설립형태	국·공립	A,B
	사립	C,D
자격증 종류	특수	A,C
	특수+일반	B,D
장애유무	청각장애 교사	A,C
	건청 교사	B,D

2. 연구도구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교과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문항 작성은 청각장애학교 및 특수학교 실태조사로 선행연구 되었던 이지윤(2006), 김정순(2004), 최향숙(2007), 김윤근(2002), 임정규(2000)등이 사용한 설문지를 분석한 후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 하여 1차 완성하였다. 설문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1차 수정을 하였고, 청각장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비조사 후 주제와의 관련성, 문항중복, 문장 등의 수정을 통해 다시 특수교육 전문가와의 토의를 거쳐 재수정하여 본 연구의 최종 37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었다.

설문지 구성 내용은 I.교사 개인적인 배경이 5문항, II.미술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8문항, III. 미술지도방법에 대해 12문항, IV.미술교육환경에 대해 12문항으로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표 III-3>와 같다.

심층질문은 1차 설문지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변인별 χ^2 (피셔의 정확검증 Fisher's exact test)검정결과 연령, 학교설립형태, 자격유형별 분포를 알아본 결과를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 5개(문항번호:1, 4-2, 13, 17, 18)에 대해서 교사 4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질문지의 내용은 변인별로 질문에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 개방형 서술의견을 물었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미술교육의 주안점, 교수적 수정 시 어려운 점, 학생 작품 창의성이 부족한 이유, 감상·표현활동의 수행평가방법, 감상평가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구성되었다.

<표 III -3> 설문지 구성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I. 교사 개인적인 배경	성별, 연령, 경력, 자격종류, 학교형태	1-5	5
II. 미술과 운영 실태	미술교육주안점, 교육과정, 중복장애학생	6-8	8
III. 미술과 지도방법 실태	감상영역지도, 표현영역지도, 수행평가	9-20	12
IV. 미술과 교육환경 실태	자료, 준비물, 연수	21-32	12
총 계			37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전국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10년 6월 1일부터 ~ 2010년 6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자료수집은 특수교육통계(2010)와 인터넷을 통한 학교 홈페이지를 토대로 전국 청각장애 특수 학교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였고, 예비조사와 특수교육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최종설문지 작성하고, 전국의 청각장애 학교 연구부장 교사와 연락을 하여 연구의 취

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조사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우편으로 19부를 발송하여 100% 회수하여 분석 하였다.

심층질문은 청각장애학교 미술 담당 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10년 7월 15일부터 ~ 2010년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청각장애유무와 연령, 자격종류, 학교설립형태를 고려하여 4명의 교사를 선정하여 우편조사와 이메일을 통해 배부하여 100%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1차 설문지 조사결과는 연구문제의 하위 영역별로 선다형의 설문문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변인(성별, 연령, 경력, 자격증, 학교설립형태)에 따른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만 셀 당 사례수가 적어서 피셔의 정확검증(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고, 개방형 서술의 견은 그대로 기술하였다.

1차 설문지 분석에서 χ^2 (피셔의 정확검증 Fisher's exact test)검정결과 변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에 대해 심층 질문하여 응답된 내용을 해당 문항의 양적 결과와 함께 그대로 기술하였다.

IV. 연구결과

1. 미술과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미술교육의 주안점

미술교육의 주안점으로 교사들의 배경 변인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미술교육의 주안점.

	구 분	교육과정 이수	취업·진로	정서·인성 함양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	합 계	자유도	x ² (p)
성 별	남	0(0.4)	1(0.4)	3(2.9)	3(3.3)	7(7.0)	3	2.271 (0.743)
	여	1(0.6)	0(0.6)	5(5.1)	6(5.7)	12(12.0)		
연 령	40세 이하	0(0.4)	0(0.4)	1(3.4)	7(3.8)	8(8.0)	3	8.529 (0.014)*
	41세 이상	1(0.6)	1(0.6)	7(4.6)	2(5.2)	11(11.0)		
경 력	5년미만	0(0.2)	0(0.2)	0(1.3)	3(1.4)	3(3.0)	6	6.493 (0.465)
	5-10년미만	0(0.2)	0(0.2)	1(1.3)	2(1.4)	3(3.0)		
	10년이상	1(0.7)	1(0.7)	7(5.5)	4(6.2)	13(13.0)		
자격증	특수	0(0.4)	0(0.4)	3(3.4)	5(3.8)	8(8.0)	3	2.131 (0.883)
	특수+ 일반	1(0.6)	1(0.6)	5(4.6)	4(5.2)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0(0.3)	0(0.3)	2(2.1)	3(2.4)	5(5.0)	3	1.272 (1.000)
	사립	1(0.7)	1(0.7)	6(5.9)	6(6.6)	14(14.0)		
합 계(%)		1(5.3%)	1(5.3%)	8(42.1%)	9(47.4%)	19(100%)		

*p < .05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빈도를 보면 창의적 표현능력의 신장에 9명(47.4%), 정서와 인성함양에 8명(42.1%), 교육과정의 이수 1명(5.3%), 취업이나 진로에 1명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x²검정결과 연령(x²=8.529, P < .05)에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미술교육의 주안점에 대해 40세 이하 교사는 창의적 표현능력신장에 중점을 둔 반면에 40세 이상의 교사는 정서와 인성함양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 교사는 정서·인성함양에 관측값(1)이 기대 빈도값(3.4)보다 낮게 나왔고,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은 관측값(7)이 기대 빈도값(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40세 이하 교사는 미술교육의 주안점을 정서와 인성함양 보다는 창의적 표현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41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교사는 정서와 인성함양에 관측값(7)이 기대 빈도값(4.6)보다 높게 나왔고, 창의적 표현능력의 신장은 관측값(2)이 기대 빈도값(5.2)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41세 이상 교사는 미술교육의 주안점을 창의적 표현능력의 신장 보다는 정서·인성 함양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0세 이하의 교사가 창의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에 대한 심층질문을 한 결과 교사 A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청각장애 교육과정에서 대부분이 주입식 수업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창의적 표현을 많이 어려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수업이 틀에 박힌 표현만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미술수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세 이상의 정서와 인성함양에 중점을 둔 교사C는 심층질문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바른 인성과 정서를 갖고 있어야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융화되어 잘 통합이 될 것이고 그래야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인성을 바르게 형성하지 못한다면 미술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서와 인성함양에 중점을 둔 미술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41세 이상의 정서와 인성함양에 중점을 둔 교사D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교육적 측면에서 정서·인성함양이 미술 교육의 중점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특수 아동들의 창의적인 표현은 일반아동들에 극히 많이 떨어져 창의적으로 무엇을 표현하기 보다는 단순히 따라해 보고 표현하는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오리기 붙이기 등은 다른 과목에 비해 매우 흥미 있어 하는 표현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표현위주의 수업을

살펴 볼 때 오히려 교육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미술 활동이 학생들의 정서활동에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서와 인성함양에 둔 미술이 아이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40세 이하 교사 일수록 주입식 수업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술교육의 주안점을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에 두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연령이 41세 이상인 교사는 교직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수많은 청각장애학생들을 졸업시키고 진학시키는 가운데 앞으로 통합된 사회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의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을 더욱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현장에서 겪는 단순 조작 활동 위주의 표현활동 보다는 정서와 인성 함양에 맞는 수업이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더욱 교육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 청각장애학교의 미술과 교육의 개선점.

청각장애학교에 근무하는 미술교사들이 학교의 미술과 교육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결과는 <표 IV-2>과 같다.

<표 IV-2> 청각장애 학교의 미술과 교육의 개선점

	구 분	교수방법	학습환경	교수자료 (교과서)	교사의 전문성	합 계	자유 도	x ² (p)
성 별	남	3(2.2)	1(1.5)	2(1.8)	1(1.5)	7(7.0)	3	1.144 (0.857)
	여	3(3.8)	3(2.5)	3(3.2)	3(2.5)	12(12.0)		
연 령	40세 이하	2(2.5)	2(1.7)	3(2.1)	1(1.7)	8(8.0)	3	1.580 (0.802)
	41세 이상	4(3.5)	2(2.3)	2(2.9)	3(2.3)	11(11.0)		
경 력	5년미만	1(0.9)	0(0.6)	1(0.8)	1(0.6)	3(3.0)	6	3.372 (0.965)
	5-10년미만	1(0.9)	0(0.6)	1(0.8)	1(0.6)	3(3.0)		
	10년이상	4(4.1)	4(2.7)	3(3.4)	2(2.7)	13(13.0)		
자격증	특수	3(2.5)	1(1.7)	3(2.1)	1(1.7)	8(8.0)	3	1.816 (0.659)
	특수+일반	3(3.5)	3(2.3)	2(2.9)	3(2.3)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2(1.6)	1(1.1)	1(1.3)	1(1.1)	5(5.0)	3	0.720 (1.000)
	사립	4(4.4)	3(2.9)	4(3.7)	3(2.9)	14(14.0)		
합 계(%)		6(31.6%)	4(21.1%)	5(26.3%)	4(21.1%)	19(100%)		

<표 V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 분포를 볼 때 가장 개선되어야 할 것은 교수방법에 6명(31.6%), 그 다음으로 교수자료는 5명(26.3%), 학습 환경은 (21.1%),

교사의 전문성은 4명(21.1%)순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의 특수성 반영 정도

2007년 개정된 미술교육과정이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3>과 같다.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약간 반영하고 있다’는 10명(52.6%), ‘잘 모르겠다’는 5명(26.3%),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3명(15.8%), ‘많이 반영되었다’는 1명(5.3%)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3>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 특수성 반영정도

	구분	많이 반영	약간 반영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합계	자유도	χ^2 (p)
성별	남	1(0.4)	4(3.7)	1(1.1)	1(1.8)	7(7.0)	3	2.339 (0.586)
	여	0(0.6)	6(6.3)	2(1.9)	4(3.2)	12(12.0)		
연령	40세 이하	1(0.4)	3(4.2)	2(1.3)	2(2.1)	8(8.0)	3	2.743 (0.550)
	41세 이상	0(0.6)	7(5.8)	1(1.7)	3(2.9)	11(11.0)		
경력	5년미만	1(0.2)	0(1.6)	0(0.5)	2(0.8)	3(3.0)	6	9.282 (0.076)
	5-10년미만	0(0.2)	3(1.6)	0(0.5)	0(0.8)	3(3.0)		
	10년이상	0(0.7)	7(6.8)	3(2.1)	3(3.4)	13(13.0)		
자격증	특수	1(0.4)	2(4.2)	2(1.3)	3(2.1)	8(8.0)	3	4.705 (0.178)
	특수+일반	0(0.6)	8(5.8)	1(1.7)	2(2.0)	11(11.0)		
설립형태	국·공립	0(0.3)	3(2.6)	1(0.8)	1(1.3)	5(5.0)	3	1.073 (1.000)
	사립	1(0.7)	7(7.4)	2(2.2)	4(3.7)	14(14.0)		
합계(%)		1(5.3%)	10(52.6%)	3(15.8%)	5(26.3%)	19(100%)		

4-1) 청각장애학교 미술교과 운영 시 교수적 수정이 필요한 부분

청각장애학교 미술과목은 어떤 교수적 수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결과는 <표 VI-4>과 같다.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교수방법의 수정’(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도입과정의 시각화 등)은 10명

(52.6%), ‘교사의 부분적 도움’은 7명(36.8%), ‘전자미술교과서의 필요성’은 1명(5.3%), ‘일반교육과정에 맞추어 수업하므로 교수적 수정이 필요 없다’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청각장애학교 미술교과 운영 시 교수적 수정이 필요한 부분

구분		전자미술 교과서필요	교사의 부분적 도움	교수 방법의 수정	일반교육 과정에 준하므로 수정 필요 없음	합계	자유 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별	남	0(0.4)	3(2.6)	4(3.7)	0(0.4)	7(7.0)	3	1.407 (1.0)
	여	1(0.6)	4(4.4)	6(6.3)	1(0.6)	12(12.0)		
연령	40세 이하	0(0.4)	2(2.9)	5(4.2)	1(0.4)	8(8.0)	3	2.735 (0.592)
	41세 이상	1(0.6)	5(4.1)	5(5.8)	0(0.6)	11(11.0)		
경력	5년미만	0(0.2)	0(1.1)	3(1.6)	0(0.2)	3(3.0)	6	9.322 (0.158)
	5-10년미만	1(0.2)	0(1.1)	2(1.6)	0(0.2)	3(3.0)		
	10년이상	0(0.7)	7(4.8)	5(6.8)	1(0.7)	13(13.0)		
자격증	특수	0(0.4)	4(2.9)	4(4.2)	0(0.4)	8(8.0)	3	2.078 (0.883)
	특수+일반	1(0.6)	3(4.1)	6(5.8)	1(0.6)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0(0.3)	2(1.8)	3(2.6)	0(0.3)	5(5.0)	3	1.162 (1.0)
	사립	1(0.7)	5(5.2)	7(7.4)	1(0.7)	14(14.0)		
합계(%)		1(5.3%)	7(36.8%)	10(52.6%)	1(5.3%)	19(100%)		

4-2) 교수적 수정 시 가장 어려운 점

교육과정에서 교수적 수정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5>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수업하므로 교육과정수정이 필요 없다’는 10명(52.6%),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6명(31.6%), ‘교수적 수정을 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2명(10.5%), ‘청각장애학교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과정이 없다’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표 IV-5> 교수적 수정 시 가장 어려운 점

구분	자료 를 쉽게 구할 수 없다.	청각장애 학교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과정 이 없음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	일반교육과 정준하므로 수정 필요 없음	합계	자유도	x ²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별	남	2(2.2)	0(0.4)	0(0.7)	5(3.7)	7(7.0)	3	2.198 (0.696)
	여	4(3.8)	1(0.6)	2(1.3)	5(6.3)	12(12.0)		
연령	40세 이하	3(2.5)	0(0.4)	1(0.8)	4(4.2)	8(8.0)	3	1.272 (1.000)
	41세 이상	3(3.5)	1(0.6)	1(1.2)	6(5.8)	11(11.0)		
경력	5년미만	2(0.9)	0(0.2)	0(0.3)	1(1.6)	3(3.0)	6	5.334 (0.613)
	5-10년미만	0(0.9)	0(0.2)	1(0.3)	2(1.6)	3(3.0)		
	10년이상	4(4.1)	1(0.7)	1(1.4)	7(6.8)	13(13.0)		
자격증	특수	4(2.5)	0(0.4)	1(0.8)	3(4.2)	8(8.0)	3	2.967 (0.470)
	특수+일반	2(3.5)	1(0.6)	1(1.2)	7(5.8)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0(1.6)	0(0.3)	2(0.5)	3(2.6)	5(5.0)	3	6.712* (0.030)
	사립	6(4.4)	1(0.7)	0(1.5)	7(7.4)	14(14.0)		
합 계(%)		6(31.6%)	1(5.3%)	2(10.5%)	10(52.6%)	19(100%)		

*p < .05

변인별 x²검정 결과 학교의 설립형태(x²=6.712, P < .05)에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교수적 수정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교수적 수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반면에, 사립학교의 교사는 교수적 수정 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다’에 관측값(0)이 기대 빈도값(1.6) 보다 낮게 나왔고,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에는 관측값(2)이 기대 빈도값(0.5) 보다 높게 나왔다. 즉 국·공립학교 교사는 교수적 수정 시 어려움으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보다는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교사는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다’에 관측값(6)이 기대 빈도값(4.4)보다 높게 나왔고,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에는 관측값(0)이 기대 빈도값(1.5)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립학교 교사는 교수적 수정 시 어려움으로 ‘준비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보다는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 교사에게 교수적 수정 시 어려운 점으로 자료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심층질문 결과 교사A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학교에서 미술실이 다른 건물에 있고 수업도 한 시간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

제 수업시간은 30분밖에 안 됩니다. 장애가 심한 학생 같은 경우 학생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수적 수정을 해주지만 실제 주어진 미술시간 30분 안에 교수적 수정을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 합니다. 이런 학교 실정 때문에 부족한 시간에 학생들이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도움을 제공하는 횟수가 다르게 적용하는 수업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기 힘으로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도움을 제공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같은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립학교 교사는 미술실 환경이 교수적 수정을 적절히 잘 적용하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수적 수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D는 심층질문 결과 교수적 수정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어떤 방법이 학생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는 늘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수적 수정은 말보다는 시각자료를 보여 주는 게 더 이해가 빨라 시각자료를 구하려고 하지만 막상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 미술관련 도서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여러 그림들을 보며 생각하여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일반 미술자료로 청각장애학생들만을 위한 미술관련 수화책이나 수화로 된 미술자료 없어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구부에서 매 학기 초에 학습자료 도서책을 신청하여 미술교과 자료로 쓸 도서 책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예산편성의 문제로 미술과목에만 많은 책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가 원하는 만큼 도서자료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대부분 교수적 수정을 하기에 정해진 학교예산안에 맞는 미술관련 도서자료를 구입해야 하므로 자료를 쉽게 구입하는데 문제점과 청각장애 학생만을 위한 미술관련 수화 자료 등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점에

교수적 수정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모두 공통적으로 미술환경에 어려움으로 교수적 수정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립학교교사는 미술실환경의 문제로, 사립학교 교사는 미술자료 구입 문제로 교수적 수정에 어려움의 차이를 나타냈다.

5) 중복장애 학생의 수

청각장애학교 중학교 학생들 중 중복장애 학생 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중복장애 학생의 수

	구 분	10% 미만	10% -30%	31% -40%	41% -50	51% 이상	합계	자유도	x ²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 별	남	0(0.4)	4(4.1)	2(1.5)	1(0.4)	0(0.7)	7 (7.0)	4	3.421 (0,688)
	여	1(0.6)	7(6.9)	2(2.9)	0(0.6)	2(1.3)	12(12.0)		
연 령	40세 이하	0(0.4)	4(4.6)	2(1.7)	0(0.4)	2(0.8)	8(8.0)	4	4.046 (0.495)
	41세 이상	1(0.6)	7(6.4)	2(2.3)	1(0.6)	0(1.2)	11(11.0)		
경 력	5년미만	0(0.2)	3(1.7)	0(0.6)	0(0.2)	0(0.3)	3(3.0)	8	5.275 (0.956)
	5-10년미만	0(0.2)	2(1.7)	1(0.6)	0(0.2)	0(0.3)	3(3.0)		
	10년이상	1(0.7)	6(7.5)	3(2.7)	1(0.7)	2(1.4)	13(13.0)		
자격 증	특수	0(0.4)	5(4.6)	2(1.7)	0(0.4)	1(0.8)	8(8.0)	4	1.987 (1.000)
	특수+ 일반	1(0.6)	6(6.4)	2(2.3)	1(0.6)	1(1.2)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1(0.3)	2(2.9)	1(1.1)	0(0.3)	1(0.5)	5(5.0)	4	4.226 (0.421)
	사립	0(0.7)	9(8.1)	3(2.9)	1(0.7)	1(1.5)	14(14.0)		
합 계(%)		1(5.3%)	11(57.9%)	4(21.1%)	1(5.3%)	2(10.5%)	19(100%)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10%-30%이하’는 11명(57.9%), ‘31%-40%이하’는 4명(21.1%), ‘51%이상’는 2명(10.5%), ‘10%미만’은 1명(5.3%), ‘41%-50%이하’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청각장애학교 중학교 중복장애 학생 수는 10-30%이하로 나타났다. x²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실시정도

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7>와 같다.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실시하고 있다’는 13명(68.4%), ‘상황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는 5명(26.3%),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청각장애학교 중학교 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7>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 실시정도

	구 분	실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실시함	실시 하지 못하고 있다.	합계	자유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 별	남	5(4.8)	2(1.8)	0(0.4)	7(7.0)	2	0.740 (1.0)
	여	8(8.2)	3(3.2)	1(0.6)	12(12.0)		
연 령	40세 이하	7(5.5)	1(2.1)	0(0.4)	8(8.0)	2	2.269 (0.432)
	41세 이상	6(7.5)	4(2.9)	1(0.6)	11(11.0)		
경 력	5년미만	3(2.1)	0(0.8)	0(0.2)	3(3.0)	4	3.852 (0.605)
	5-10년미만	3(2.1)	0(0.8)	0(0.2)	3(3.0)		
	10년이상	7(8.9)	5(3.4)	1(0.7)	13(13.0)		
자격증	특수	5(5.5)	3(2.1)	0(0.4)	8(8.0)	2	1.458 (0.773)
	특수+일반	8(7.5)	2(2.9)	1(0.6)	11(11.0)		
설립형태	국·공립	3(3.4)	2(1.3)	0(0.3)	5(5.0)	2	1.180 (0.693)
	사립	10(9.6)	3(3.7)	1(0.7)	14(14.0)		
합 계(%)		13(68.4%)	5(26.3%)	1(5.3%)	19(100%)		

7) 중복장애 학생들의 교육 개선점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이 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8>과 같다.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은 7명(36.8%), ‘흥미를 위한 다양한 시각적 교재’는 6명(31.6%), ‘충분히 개별적인 교육시간이 필요하다’는 4명(21.1%), ‘중복학생에게 맞는 수업방법에 대한 교사연수’는 2명(10.5%)으로 나타났다.

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8> 중복장애 학생들의 교육 개선점

구분	미של 시간이 필요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수업방법에 대한 교사연수 필요	다양한 시각적 교재가 필요	합계	자유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별	남	2(1.5)	0(2.6)	1(0.7)	4(2.2)	7(7.0)	3	7.257 (0.052)
	여	2(2.5)	7(4.4)	1(1.3)	2(3.8)	12(12.0)		
연령	40세 이하	1(1.7)	5(2.9)	0(0.8)	2(2.5)	8(8.0)	3	4.037 (0.267)
	41세 이상	3(2.3)	2(4.1)	2(1.2)	4(3.5)	11(11.0)		
경력	5년미만	0(0.6)	2(1.1)	0(0.3)	1(0.9)	3(3.0)	6	4.353 (0.824)
	5-10년미만	0(0.6)	2(1.1)	0(0.3)	1(0.9)	3(3.0)		
	10년이상	4(2.7)	7(7.0)	2(2.0)	4(4.1)	13(13.0)		
자격증	특수	1(1.7)	4(2.9)	1(0.8)	2(2.5)	8(8.0)	3	1.629 (0.776)
	특수+일반	3(2.3)	3(4.1)	1(1.2)	4(3.5)	11(11.0)		
설립형태	국·공립	1(1.1)	3(1.8)	1(0.5)	0(1.6)	5(5.0)	3	3.988 (0.278)
	사립	3(2.9)	4(5.2)	1(1.5)	6(4.4)	14(14.0)		
합계(%)		4(21.1%)	7(36.8%)	2(10.5%)	6(31.6%)	19(100%)		

8) 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수적 수정

중복장애 학생들만을 위한 교수적 수정이나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IV-9>과 같다.

<표 IV-9> 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수적 수정

구분	시간조절과 부분 도움	능력에 맞는 방법을 제시	친숙한 재료로 동기 유발	교사 교육적 노하우 부족	합계	자유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별	남	3(2.9)	4(2.6)	0(1.1)	0(0.4)	7(7.0)	3	3.175 (0.432)
	여	5(5.1)	3(4.4)	3(1.9)	1(0.6)	12(12.0)		
연령	40세 이하	3(3.4)	3(2.9)	2(1.3)	0(0.4)	8(8.0)	3	1.649 (0.903)
	41세 이상	5(4.6)	4(4.1)	1(1.7)	1(0.6)	11(11.0)		
경력	5년미만	2(1.3)	1(1.1)	0(0.5)	0(0.2)	3(3.0)	6	6.899 (0.399)
	5-10년미만	0(1.3)	1(1.1)	2(0.5)	0(0.2)	3(3.0)		
	10년이상	6(5.5)	5(4.8)	1(2.1)	1(0.7)	13(13.0)		
자격증	특수	5(3.4)	1(2.9)	2(1.3)	0(0.4)	8(8.0)	3	4.868 (0.183)
	특수+일반	3(4.6)	6(4.1)	1(1.7)	1(0.6)	11(11.0)		
설립형태	국·공립	1(2.1)	2(1.8)	2(0.8)	0(0.3)	5(5.0)	3	3.505 (0.338)
	사립	7(5.9)	5(5.2)	1(2.2)	1(0.7)	14(14.0)		
합계(%)		8(42.1%)	7(36.8%)	3(15.8%)	1(5.3%)	19(100%)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시간조절과 부분적 도움’은 8명(42.1%), ‘능력에 맞는 방법을 제시(단계별 프로그램)’은 7명(36.8%),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재료로 동기유발’은 3명(15.8%), ‘교사자신의 교육적 노하우가 부족한 것 같다’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미술과 지도방법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미술은 미적체험, 표현, 감상 이렇게 3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 대부분 미술교사들은 미술수업을 진행할 때 미적체험에 대한 지도는 따로 하지 않고, 표현활동이나 감상활동 시간에 연계적으로 지도(교육과학기술부, 2008)하여 학생들이 감상 활동 시간에 본 미술작품을 통해 미적인 사고를 키우는 지도방법을 하고 있다.

표현활동 시간에 제작하는 과정 중에서 미적체험 시간에 익히는 조형의 요소를 발견하고, 감상활동 시간에 감상하는 활동 중에서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미적체험을 할수 있는 통합적 지도방법으로 수업을 진행되고 있다.

이런 영역간의 통합적으로 배우는 미적체험에 대한 미술 지도방법은 따로 넣지 않고 감상영역과 표현영역의 미술지도 방법, 수행평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1) 감상영역 지도 시 미술용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정도

감상영역 지도 시 미술용어에 대한 학생 이해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보통이다’는 10명(52.6%), ‘이해도가 낮다’는 7명(36.8%), ‘이해도가 높다’는 1명(5.3%),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10>감상영역 지도 시 미술용어에 대한 학생의 이해정도

구분	이해도가 높다	보통이다	이해도가 낮다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합계	자유도	x ²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별	남	1(0.4)	3(3.7)	3(2.6)	0(0.4)	7(7.0)	3	2.526 (0.574)
	여	0(0.6)	7(6.3)	4(4.4)	1(0.6)	12(12.0)		
연령	40세 이하	0(0.4)	5(4.2)	2(2.9)	1(0.4)	8(8.0)	3	2.735 (0.592)
	41세 이상	1(0.6)	5(5.8)	5(4.1)	0(0.6)	11(11.0)		
경력	5년미만	0(0.2)	2(1.6)	1(1.1)	0(0.2)	3(3.0)	6	3.906 (0.902)
	5-10년미만	0(0.2)	1(1.6)	2(1.1)	0(0.2)	3(3.0)		
	10년이상	1(0.7)	7(6.8)	4(4.8)	1(0.7)	13(13.0)		
자격증	특수	1(0.4)	3(4.2)	3(2.9)	1(0.4)	8(8.0)	3	3.197 (0.335)
	특수+일반	0(0.6)	7(5.8)	4(4.1)	0(0.6)	11(11.0)		
설립형태	국·공립	1(0.3)	2(2.6)	1(1.8)	1(0.3)	5(5.0)	3	5.321 (0.124)
	사립	0(0.7)	8(7.4)	6(5.2)	0(0.7)	14(14.0)		
합계(%)		1(5.3%)	10(52.6%)	7(36.8%)	1(5.3%)	19(100%)		

2) 감상 영역의 지도 시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은 원인.

감상 영역의 지도 시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감상 영역의 지도 시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은 원인

구분	학생의 언어 능력 부족	직접 체험 기회가 부족	다양한 교수방법 적용능력이 부족	흥미가 낮다.	기타	합계	자유도	x ²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별	남	3(2.6)	2(2.9)	0(0.4)	1(0.7)	1(0.4)	7(7.0)	4	3.200 (0.722)
	여	4(4.4)	6(5.1)	1(0.6)	1(1.3)	0(0.6)	12(12.0)		
연령	40세 이하	2(2.9)	4(3.4)	0(0.4)	2(0.8)	0(0.4)	8(8.0)	4	4.401 (0.335)
	41세 이상	5(4.1)	4(4.6)	1(0.6)	0(1.2)	1(0.6)	11(11.0)		
경력	5년미만	0(1.1)	2(1.3)	0(0.2)	1(0.3)	0(0.2)	3(3.0)	8	7.083 (0.707)
	5-10년미만	1(1.1)	2(1.3)	0(0.2)	0(0.3)	0(0.2)	3(3.0)		
	10년이상	6(4.8)	4(5.5)	1(0.7)	1(1.4)	1(0.7)	13(13.0)		
자격증	특수	2(2.9)	4(3.4)	1(0.4)	1(0.8)	0(0.4)	8(8.0)	4	3.014 (0.780)
	특수+일반	5(4.1)	4(4.6)	0(0.6)	1(1.2)	1(0.6)	11(11.0)		
설립형태	국·공립	3(1.8)	2(2.1)	0(0.3)	0(0.5)	0(0.3)	5(5.0)	4	2.383 (0.798)
	사립	4(5.2)	6(5.9)	1(0.7)	2(1.5)	1(0.7)	14(14.0)		
합계(%)		7(36.8%)	8(42.1%)	1(5.3%)	2(10.5%)	1(5.3%)	19(100%)		

<표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교사의 흥미를 유발 시키는 시각적인 자료나 직접체험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8명(42.1%),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미술 감상 교육의 어려움이 있다’는 7명(36.8%), ‘학생들이 대부분 미술감상 교육에 대한 흥미도가 낮다’는 2명(10.5%), ‘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방법 적용능력이 부족하다’는 1명(5.3%), ‘기타’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감상영역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

감상영역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12>과 같다.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미술관이나 전시회 관람을 통한 직접체험의 기회를 높여주어야 한다’는 7명(36.8%), ‘시각자료나 충분한 인터넷 시각자료를 제시하여 인터넷을 통한 감상교육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7명(36.8%), ‘미술수화 용어집이나, 대체 의사소통판 등을 이용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적 자료가 필요하다’는 3명(15.8%), ‘문장위주의 감상교육이 아닌 표현활동과 연계된 수업진행을 한다’는 2명(10.5%)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12>감상영역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

	구분	직접 체험 기회	시각자료 통한 감상 교육 활성화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적 자료	표현활동과 연계된 수업진행	합계	자유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별	남	5(2.6)	2(2.6)	0(1.1)	0(0.7)	7(7.0)	3	5.598 (0.138)
	여	2(4.4)	5(4.4)	3(1.9)	2(1.3)	12(12.0)		
연령	40세 이하	2(2.9)	2(2.9)	3(1.3)	1(0.8)	8(8.0)	3	4.883 (0.218)
	41세 이상	5(4.1)	5(4.1)	0(1.7)	1(1.2)	11(11.0)		
경력	5년미만	1(1.1)	1(1.1)	1(0.5)	0(0.3)	3(3.0)	6	8.552 (0.120)
	5-10년미만	0(1.1)	1(1.1)	2(0.5)	0(0.3)	3(3.0)		
	10년이상	6(4.8)	5(4.8)	0(2.1)	2(1.4)	13(13.0)		
자격 증	특수	4(2.9)	1(2.9)	2(1.3)	1(0.8)	8(8.0)	3	3.862 (0.342)
	특수+일반	3(4.1)	6(4.1)	1(1.7)	1(1.2)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1(1.8)	2(1.8)	1(0.8)	1(0.5)	5(5.0)	3	1.826 (0.886)
	사립	6(5.2)	5(5.2)	2(2.2)	1(1.5)	14(14.0)		
합계(%)		7(36.8%)	7(36.8%)	3(15.8%)	2(10.5%)	19(100%)		

4) 표현 활동 시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조절.

표현활동 시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조절해 주고 있는지에 응답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통제와 자율성을 적절히 혼용하고 있다’(주제는 정해 주되 표현 방법과 재료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11명(57.9%), ‘학생의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나 학생들이 잘 해내지 못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4명(21.1%), ‘모든 것을 정해 주고 참고 자료를 주어 완성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비슷하게 표현하도록 유도 한다)’는 4명(21.1%)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13>표현 활동 시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조절.

구분	통제와 자율성을 적절히 혼용	자율성을 부여하나 잘 못함	교사가 완성의 방향을 제시	합계	자유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별	남	4(4.1)	1(1.5)	2(1.5)	2	0.715 (1.000)
	여	7(6.9)	3(2.5)	2(2.5)		
연령	40세 이하	4(4.6)	2(1.7)	1(1.7)	2	0.760 (0.843)
	41세 이상	6(6.4)	2(2.3)	3(2.3)		
경력	5년미만	1(1.7)	1(0.6)	1(0.6)	4	2.596 (0.883)
	5-10년미만	2(1.7)	1(0.6)	0(0.6)		
	10년이상	8(7.5)	2(2.7)	3(2.7)		
자격증	특수	4(4.6)	2(1.7)	2(1.7)	2	0.622 (1.000)
	특수+일반	7(6.4)	2(2.3)	2(2.3)		
설립형태	국·공립	3(2.9)	1(1.1)	1(1.1)	2	0.344 (1.000)
	사립	8(8.1)	3(2.9)	3(2.9)		
합계(%)		11(57.9%)	4(21.1%)	4(21.1%)	19(100%)	

5) 창의성이 부족한 이유

청각장애 학생들의 미술작품이 창의성이 부족한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교사와 학생이 수업내용에 대한 의사표현의 상호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9명

(47.7%), ‘상상을 자극하는 시각자료의 제시가 미흡하기 하다’는 5명(26.3%),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가 미흡하다’는 3명(15.8%), ‘학생들이 미술은 기능위주의 모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2명(10.5%)으로 나타났다.

<표 IV-14>창의성 부족 이유

	구분	시각자료 제시가 미흡	의사표현과 상호소통 문제	기능위주의 모방이라는 인식	다양한 재료나 주제가 미흡	합계	자유도	x ²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별	남	3(1.8)	4(3.3)	0(0.7)	0(1.1)	7(7.0)	3	3.584 (0.356)
	여	2(3.2)	5(5.7)	2(1.3)	3(1.9)	12(12.0)		
연령	40세 이하	3(2.1)	3(3.8)	1(0.8)	1(1.3)	8(8.0)	3	1.483 (0.900)
	41세 이상	2(2.9)	6(5.2)	1(1.2)	2(1.7)	11(11.0)		
경력	5년미만	1(0.8)	1(1.4)	1(0.3)	0(0.5)	3(3.0)	6	4.158 (0.837)
	5-10년미만	1(0.8)	1(1.4)	1(0.3)	1(0.5)	3(3.0)		
	10년이상	3(3.4)	7(6.2)	1(1.4)	2(2.1)	13(13.0)		
자격증	특수	5(2.1)	2(3.8)	0(0.8)	1(1.3)	8(8.0)	3	9.169 *(0.012)
	특수+일반	0(2.9)	7(5.2)	2(1.2)	2(1.7)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2(1.3)	2(2.4)	1(0.5)	0(0.8)	5(5.0)	3	2.317 (0.561)
	사립	3(3.7)	7(6.6)	1(1.5)	3(2.2)	14(14.0)		
합계(%)		5(26.3%)	9(47.4%)	2(10.5%)	3(15.8%)	19(100%)		

*p < .05

변인별 x²검정결과 교사자격증(x²=9.169, P < .05)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창의성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시각자료의 제시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한 반면에 특수와 일반 자격증 모두 가진 교사는 창의성 부족 이유를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시각자료제시 미흡’에 관측값(5)이 기대 빈도값(2.1)보다 높게 나타났고, ‘의사표현의 문제’에 관측값(2)이 기대 빈도값(3.8)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특수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미술작품의 창의성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의사표현의 문제’ 보다는 ‘시각 자료제시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수자격증과 일반자격증을 모두 가진 교사는 ‘시각자료제시 미흡’에 관측값(0)이 기대 빈도값(2.9)보다 낮게 나타났고, ‘의사표현의 문제’에 관측값(7)이 기대 빈도값(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특수와 일반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미술

작품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시각자료제시 미흡’ 보다는 ‘의사표현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자격증을 가진 교사A가 작품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시각자료의 제시가 미흡’이라고 답한 이유에 대해 심층질문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농학생들은 다른 일반학생들에 비해 상상력이 풍부하고 엉뚱하고 기발한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많은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시각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면 충분히 발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하며 제작과정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A4 용지에다 출력해서 코팅한 것을 수업에 활용한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학부와 고등부 전학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볼 때마다 미흡하다고 여길 때도 있지만 학생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수미술(서양화, 한국화, 조소)을 전공하지 않고, 응용미술분야인 직업교과(공예, 디자인)에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대부분 부전공으로 직업과목(디자인, 공예)를 전공하여 2년내지 1년에 직업과목을 이수하게 되므로, 미술실기 관련된 전문적 실습기간이 짧다. 심층질문결과 특수자격증을 가진 A교사는 자신이 만든 작품의 결과물을 사진으로 찍어 그 과정을 보여주게 되어 학생들은 교사의 작품 자료 하나만으로 자신이 만들어야 할 작품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게 하고 있었다.

특수자격증과 일반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미술작품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이 수업내용에 대한 의사표현의 상호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질문지 결과 이런 의사소통에 대한 해결 노하우에 대해서 교사D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미술과목이 그렇듯 참고작품을 통해 설명해주고 제시하는 쪽이 많으며, 언어 표현보다는 단어에 가까운 표현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말과 수화로 표현한 부분 보다 많은 그림과 예시작품을 통해 제시가 되었을 때 이해를 더 잘 하므로 저는 다양한 예시작품을 많이 보여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화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는 수화는 단순하여 오히려 다양한 시각자료를

제시하는 수업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와 일반 자격증을 모두 가진 교사D는 학부 4년 동안 미술적 지식의 노하우를 통해 많은 그림과 예시작품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이 표현의 가능성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교수법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하고 제시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그 사진들을 심층적으로 수화로 설명해 주는 의사소통에 문제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자격증과 특수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순수미술(한국화, 서양화, 조소)를 학부 때 전공하였으므로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학부 4년을 더한 최소 5~6년 동안 미술 실기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술 실기에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은 높지만 대학원에서 특수교육관련 교육을 받아 상대적으로 짧은 특수교육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되는 자격증에 따른 교사변인들의 특징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런 자격증에 따른 상반된 교사들의 전문성으로 인해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겪는 고충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지도 방법

청각장애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지도방법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지도 방법

	구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재료와 주제를 학생들이 선택	지각 능력의 신장	비평적인 사고와 탐구심	합계	자유도	x ² (p)
성별	남	6(4.8)	0(0.4)	1(1.1)	0(0.7)	7(7.0)	3	2.011 (0.847)
	여	7(8.2)	1(0.6)	2(1.9)	2(1.3)	12(12.0)		
연령	40세 이하	6(5.5)	1(0.4)	0(1.3)	1(0.8)	8(8.0)	3	3.493 (0.296)
	41세 이상	7(7.5)	0(0.6)	3(1.7)	1(1.2)	11(11.0)		
경력	5년미만	2(2.1)	0(0.2)	0(0.5)	1(0.3)	3(3.0)	6	4.458 (0.794)
	5-10년미만	3(2.1)	0(0.2)	0(0.5)	0(0.3)	3(3.0)		
	10년이상	8(8.9)	1(0.7)	3(2.1)	1(1.4)	13(13.0)		
자격증	특수	8(5.5)	0(0.4)	0(1.3)	0(0.8)	8(8.0)	3	5.455 (0.084)
	특수+일반	5(7.5)	1(0.6)	3(1.7)	2(1.2)	11(11.0)		
설립형태	국·공립	3(3.4)	0(0.3)	1(0.8)	1(0.5)	5(5.0)	3	1.822 (0.826)
	사립	10(9.6)	1(0.7)	2(2.2)	1(1.5)	14(14.0)		
합계(%)		13(68.4%)	1(5.3%)	3(15.8%)	2(10.5%)	19(100%)		

<표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13명(68.4%), ‘사고전체에 대한 사물을 보는 방법인 시각능력을 키워 줘야한다’는 3명(15.8%), ‘비평적인 사고와 탐구심을 키워줘야 한다’는 2명(10.5%), ‘다양한 재료와 주제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청각장애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방법으로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지도방법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지도방법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6>청각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지도방법

구분	개별지도	다양한 표현재료 와 방법에 자율성	시각적 프로그램 자료를 직접 제작	일반아동과 같은 지도방법	수화와 문자 자료 이용	합계	자유도	χ^2 (p)
성 별	남	1(0.7)	0(1.1)	0(0.7)	5(4.1)	1(0.4)	4	4.540 (0.293)
	여	1(1.3)	3(1.9)	2(1.3)	6(6.9)	0(0.6)		
연 령	40세 이하	0(0.8)	2(1.3)	1(0.8)	4(4.6)	1(0.4)	4	3.641 (0.602)
	41세 이상	2(1.2)	1(1.7)	1(1.2)	7(6.4)	0(0.6)		
경 력	5년미만	0(0.3)	0(0.5)	1(0.3)	1(1.7)	1(0.2)	8	11.129 (0.123)
	5-10년미만	0(0.3)	1(0.5)	1(0.3)	1(1.7)	0(0.2)		
	10년이상	2(1.4)	2(2.1)	0(1.4)	9(7.5)	0(0.7)		
자격증	특수	1(0.8)	2(1.3)	0(0.8)	4(4.6)	1(0.4)	4	3.641 (0.602)
	특수+일반	1(1.2)	1(1.7)	2(1.2)	7(6.4)	0(0.6)		
설립 형태	국·공립	0(0.5)	2(0.8)	1(0.5)	2(2.9)	0(0.3)	4	4.396 (0.393)
	사립	2(1.5)	1(2.2)	1(1.5)	9(8.1)	1(0.7)		
합 계(%)		2(10.5%)	3(15.8%)	2(10.5%)	11(57.9%)	1(5.3%)	19(100%)	

<표 I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일반아동과 같은 지도방법을 하므로 특별한 지도방법이 없다’는 11명(57.9%), ‘다양한 시각적 참

고작품과 표현재료와 표현방법의 자율성을 준다'은 3명(15.8%), '개별지도를 해준다'은 2명(10.5%), '시각적 프로그램자료를 직접 제작하여 제시해 준다'은 2명(10.5%), '수화와 문자자료를 이용한 지도를 해준다'은 1명(5.3%)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지도방법으로 일반아동과 같은 지도방법을 하므로 특별한 지도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8) 감상영역의 수행 평가 시 활용하고 있는 평가방법

감상영역의 수행 평가 시 활용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대한 질문응답은 <표 IV-17>와 같다. <표 I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1순위는 '실기법' 8명(42.1%), 2순위는 '관찰법' 8명(42.1%), 3순위는 '토론법' 6명(31.3%)으로 나타났다.

<표 IV-17>감상영역의 수행 평가 시 활용하고 있는 평가방법

구분	1순위 명(%)	2순위 명(%)	3순위 명(%)
관찰법	7(36.8)	8(42.1)	2(10.5)
감상문	3(15.8)	4(21.1)	3(15.8)
토론법	0(0)	2(10.5)	6(31.6)
포트폴리오	0(0)	1(5.3)	2(10.5)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법	1(5.3)	0(0)	0(0)
실기법	8(42.1)	2(10.5)	3(15.8)
면접법	0(0)	1(5.3)	0(0)
구술시험	0(0)	0(0)	1(5.3)
연구보고서	0(0)	1(5.3)	2(10.5)
합계(%)	19(100%)	19(100%)	19(100%)

9) 감상 및 표현활동의 수행평가에 대한 활용정도

감상 및 표현활동의 수행평가에 대한 활용정도는 <표 IV-18>과 같다. <표 I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활용을 하려 하나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힘든 수준'은 9명(47.4%),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5명(26.3%), '시수의 부족 등으로 활용할 시간이 없다'는 4명(21.1%), '활용을 하

려 하나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표 IV-18>감상 및 표현활동의 수행평가에 대한 활용정도

	구 분	잘 이루어짐	적용하기 힘든 수준이다	활용을 방법을 모름	활용할 시간이 없다.	합계	자유도	x ²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 별	남	3(1.8)	3(3.3)	0(0.4)	1(1.5)	7(7.0)	3	2.028 (0.725)
	여	2(3.2)	6(5.7)	1(0.6)	3(2.5)	12(12.0)		
연 령	40세 이하	0(2.1)	6(3.8)	1(0.4)	1(1.7)	8(8.0)	3	7.303* (0.028)
	41세 이상	5(2.9)	3(5.2)	0(0.6)	3(2.3)	11(11.0)		
경 력	5년미만	0(0.8)	2(1.4)	1(0.2)	0(0.6)	3(3.0)	6	7.069 (0.286)
	5-10년미만	0(0.8)	2(1.4)	0(0.2)	1(0.6)	3(3.0)		
	10년이상	5(3.4)	5(6.2)	0(0.7)	3(2.7)	13(13.0)		
자격증	특수	2(2.1)	5(3.8)	0(0.4)	1(1.7)	8(8.0)	3	1.888 (0.900)
	특수+일반	3(2.9)	4(5.2)	1(0.6)	3(2.3)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0(1.3)	3(2.4)	1(0.3)	1(1.1)	1(1.0)	3	4.247 (0.157)
	사립	5(3.7)	6(6.6)	0(0.7)	3(2.9)	14(14.0)		
합 계(%)		5(26.3%)	9(47.4%)	1(5.3%)	4(21.1%)	19(100%)		

*p < .05

x²검정 결과 연령(x²=7.303, P < .05)에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수행평가에 대한 활용정도에 대해 40세 이하 교사는 '적용하기 힘든 수준이다' 라고 말한 반면에 41세 이상인 교사는 수행평가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 교사는 '잘 이루어짐'에 관측값(0)이 기대 빈도값(2.1) 보다 낮게 나타났고, '적용하기 힘든 수준'에 관측값(6)이 기대 빈도값(3.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40세 이하 교사는 수행평가의 활용정도에 대해 잘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생들이 적용하기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41세 이상 교사는 '잘 이루어짐'에 관측값(5)이 기대 빈도값(2.9) 보다 높게 나타났고, '적용하기 힘든 수준'에 관측값(3)이 기대 빈도값(5.2)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41세 이상 교사는 수행평가의 활용 정도에 대해 적용하기 힘든 수준 보

다는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 교사가 수행평가의 활용이 ‘적용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한 심층질문결과 교사A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수행평가를 적용 하려면 같은 작품을 두 번 만들어야 하는 점 때문에 같은 것을 두 번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또한 중복장애로 인해 손의 기능적 사용에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는 수행평가를 정말 적용하기에 힘든 수준입니다”

41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교사는 수행평가의 활용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 라고 답한 이유에 대한 심층 질문 결과 C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농인 교사이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화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점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아이들의 입장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평가를 잘 선택해서 수업과 평가가 모두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41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교사D는 수행평가 활용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수업시간에 한 작품들을 즉시 비교 평가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된 작품과 잘못된 작품을 같이 비교 감상하여 스스로 보면서 느끼는 점들을 이야기 하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표현이 서툰 학생들과 중복장애 학생들은 간단한 물음을 제시해 비교하여 답하도록 해서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맞는 수행평가방법을 수정하여 제시해 주어 중복장애 학생들의 수행평가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간단한 물음으로 비교 감상에 대한 감정들을 질문 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대부분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비교 감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중복장애 학생들도 수행평가에 대한 저의 교수방법에 거부감 없이 잘 따라 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0세 이하 교사는 교직경력은 짧아 반복하기를 싫어하는 학생의 흥미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 노하우나 교수방법의 시행착오들이 나타났고, 이는 곧 학생들의 흥미도를 계속 유지 하면서 수행평가를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로 나타났다. 반면에 41세 이상의 농교사들은 스스로 학생들의 눈높이를 낮추거나 학생의 입장과 교육적 상황에 맞는 학생들의 경험을 고려한 미술수행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평가가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맞는 수행평가의 수정방법을 통해 수행평가의 활용을 모든 학생들에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감상평가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

감상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에 대한 결과는<표 IV-19>와 같다. <표 I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어려운 미술용어를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7명(36.8%), ‘학생들이 글로 쓰는 감상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6명(31.6%), ‘실기위주의 수업을 하므로 감상할 시간이 없다’는 4명(21.1%), ‘학생들이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2명(10.5%)으로 나타났다.

<표 IV-19>감상평가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

	구분	감상할 시간이 없다.	어려운 미술용어 어려움	수행평가 방법으로 감상 방법을 모른다	감상문 쓰기 어려움	합계	자유도	x ² (p)
성 별	남	1(1.5)	2(2.6)	1(0.7)	3(2.2)	7(7.0)	3	1.404 (0.842)
	여	3(2.5)	5(4.4)	1(1.3)	3(3.8)	12(12.0)		
연 령	40세 이하	3(1.7)	2(2.9)	1(0.8)	2(2.5)	8(8.0)	3	2.650 (0.586)
	41세 이상	1(2.3)	5(4.1)	1(1.2)	4(3.5)	11(11.0)		
경 력	5년미만	0(0.6)	1(1.1)	0(0.3)	2(0.9)	3(3.0)	6	3.413 (0.926)
	5-10년미만	1(0.6)	1(1.1)	0(0.3)	1(0.9)	3(3.0)		
	10년이상	3(2.7)	5(4.8)	2(1.4)	3(4.1)	13(13.0)		
자격증	특수	3(1.7)	2(2.9)	1(0.8)	2(2.5)	8(8.0)	3	2.650 (0.586)
	특수+일반	1(2.3)	5(4.1)	1(1.2)	4(3.5)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3(1.1)	0(1.8)	0(0.5)	2(1.6)	5(5.0)	3	7.068* (0.042)
	사립	1(2.9)	7(5.2)	2(1.5)	4(4.4)	14(14.0)		
합 계(%)		4(21.1%)	7(36.8%)	2(10.5%)	6(31.6%)	19(100%)		

*p < .05

변인별 χ^2 분석결과 학교설립형태($\chi^2=7.068$, $P < .05$)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를 보여 주었다. 감상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공립 교사는 감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한 반면에, 사립학교 교사는 어려운 미술용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감상 할 시간이 없다’에 관측값(3)이 기대 빈도값(1.1)보다 높게 나타났고, ‘어려운 미술용어’에 관측값(0)이 기대 빈도값(1.8)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국·공립학교 교사는 감상평가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어려운 ‘미술용어’ 보다는 ‘감상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교사는 ‘감상 할 시간이 없다’에 관측값(1)이 기대 빈도값(2.9) 보다 낮게 나타났고, ‘어려운 미술용어’에 관측값(7)이 기대 빈도값(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립학교 교사는 감상평가의 어려운 이유는 감상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미술용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학교에 교사들이 감상평가에 어려움을 ‘감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에 대한 심층질문 결과 교사A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저는 청각장애 2급으로 수화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미술용어와 관련해서 준비한 사진과 그림을 제시 한다면서 깊이 있는 설명을 들려주기 때문에 수업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술실이 다른 건물에 있어 수업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아 감상 할 시간이 부족하여 감상 시간이 매 학기 1회 정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이 미술평가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미술용어의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한 이유에 대해 심층 질문 결과 사립학교 D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하였다.

“일반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미술용어가 있는데 특수아동들은 언어적으로 듣지도 못하는 미술용어들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수화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표현만이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표현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간의 미묘한 감정들이 특히 예술작품에서는 많이 적용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상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의 표현이 ‘아름답다’, ‘깨끗하게

잘 표현되었다’ 정도의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언어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 감상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층질문에 답하신 국·공립학교 교사는 청각장애를 가진 교사로 아이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미술 감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사립교사는 건청인으로 학생들과 언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교사의 장애 유무나 더 나아가 학생들과 공통된 의사소통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학생들과 수업 하면서 겪는 교사의 어려움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1) 감상평가가 개선되기 위한 방법

감상평가가 개선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나에 대한 질문응답결과는 <표 IV-20>과 같다.

<표 IV-20>감상평가가 개선되기 위한 방법

구분	영역간연 계적 지도	미술 용어 설명 교재 필요.	직접체험 을 통한 미술품감 상의 기회 확대	감상 방법에 대한 시범	감정을 표현할 방법 안내	합계	자유도	x ²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 별	남	2(1.5)	1(1.1)	2(1.5)	1(0.7)	1(2.2)	7(7.0)	4	2.390 (0.758)
	여	2(2.5)	2(1.9)	2(2.5)	1(1.3)	5(3.8)	12(12.0)		
연 령	40세 이하	1(1.7)	0(1.3)	2(1.7)	1(0.8)	4(2.5)	8(8.0)	4	4.190 (0.470)
	41세 이상	3(2.3)	3(1.7)	2(2.3)	1(1.2)	2(2.5)	11(11.0)		
경 력	5년미만	0(0.6)	0(0.5)	1(0.6)	0(0.3)	2(0.9)	3(3.0)	8	6.046 (0.762)
	5-10년미만	1(0.6)	0(0.5)	0(0.6)	1(0.3)	1(0.9)	3(3.0)		
	10년이상	3(2.7)	3(2.1)	3(2.7)	1(1.4)	3(4.1)	13(13.0)		
자격증	특수	1(1.7)	0(1.3)	3(1.7)	2(0.8)	2(2.5)	8(8.0)	4	6.388 (0.159)
	특수+일반	3(2.3)	3(1.7)	1(2.3)	0(1.2)	4(3.5)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0(1.1)	0(0.8)	1(1.1)	1(0.5)	3(1.6)	5(5.0)	4	4.370 (0.342)
	사립	4(2.9)	3(2.2)	3(2.9)	1(1.5)	3(4.4)	14(14.0)		
합 계(%)		4(21.1%)	3(15.8%)	4(21.1%)	2(10.5%)	6(31.6%)	19(100%)		

<표 IV-20>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학생들이 자신이 느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을 안내해 준다’는 6명(31.6%),

‘표현활동과 감상영역과의 연계성, 미적체험과 표현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 한다’는 4명(21.1%), ‘직접체험을 통한 미술품감상의 기회가 많아지도록 한다’는 4명(21.1%), ‘어려운 미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교재가 필요하다’는 3명(15.8%),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작을 통한 시범을 보여 준다’는 2명(10.5%)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2) 감상 평가의 애로사항

청각장애학교 감상 평가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 응답결과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1>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평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는 14명(73.7%), ‘기초학력의 부족하여 감상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2명(10.3%), ‘청각장애 학생에게 맞는 감상평가 자료가 부족하다’는 1명(5.3%), ‘미술관 견학을 통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1명(5.3%), ‘기타’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21>감상 평가의 애로사항

	구 분	의사소통 어려움	감상 평가 자료가 부족.	문화적 체험의 기회 부족.	기초학력 부족하여 감상수업 어려움	기타	합계	자유 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 별	남	5(5.2)	1(0.4)	1(0.4)	0(0.7)	0(0.4)	7(7.0)	4	4.544 (0.396)
	여	9(8.8)	0(0.6)	0(0.6)	2(1.3)	1(0.6)	12(12.0)		
연 령	40세 이하	6(5.9)	0(0.4)	0(0.4)	1(0.8)	1(0.4)	8(8.0)	4	2.972 (0.909)
	41세 이상	8(8.1)	1(0.6)	1(0.6)	1(1.2)	0(0.6)	11(11.0)		
경 력	5년미만	3(2.2)	0(0.2)	0(0.2)	0(0.3)	0(0.2)	3(3.0)	8	6.019 (0.889)
	5-10년미만	2(2.2)	0(0.2)	0(0.2)	1(0.3)	0(0.2)	3(3.0)		
	10년이상	9(9.6)	1(0.7)	1(0.7)	1(1.4)	1(0.7)	13(13.0)		
자격증	특수	6(5.9)	1(0.4)	0(0.4)	1(0.8)	0(0.4)	8(8.0)	4	2.972 (0.909)
	특수+ 일반	8(8.1)	0(0.6)	1(0.6)	1(1.2)	1(0.6)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4(3.7)	0(0.3)	0(0.3)	1(0.5)	0(0.3)	5(5.0)	4	2.341 (1.000)
	사립	10(10.3)	1(0.7)	1(0.7)	1(1.5)	1(0.7)	14(14.0)		
합 계(%)		14(73.7%)	1(5.3%)	1(5.3%)	2(10.3%)	1(5.3%)	19(100%)		

3. 미술과 교육환경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미술활동 지도 시 가장 필요한 미술자료

미술활동 지도 시 가장 필요한 미술자료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2>과 같다.

<표 IV-22> 미술활동 지도 시 가장 필요한 미술자료

	구 분	실기 프로그램 교과서	수화 시각자료 미술 용어집	수준별 미술 교과서	다양한 미술 준비물 보조	합계	자유도	x ² (p)
성 별	남	1(1.8)	2(2.5)	3(2.2)	1(1.5)	7(7.0)	3	1.720 (0.740)
	여	4(3.2)	2(2.5)	3(3.8)	3(2.5)	12(12.0)		
연 령	40세 이하	2(2.1)	1(1.7)	3(2.5)	2(1.7)	8(8.0)	3	1.005 (0.929)
	41세 이상	3(2.9)	3(2.3)	3(3.5)	2(2.3)	11(11.0)		
경 력	5년미만	1(0.8)	0(0.6)	2(0.9)	0(0.6)	3(3.0)	6	6.145 (0.421)
	5-10년미만	1(0.8)	0(0.6)	2(0.9)	0(0.6)	3(3.0)		
	10년이상	3(3.4)	4(2.7)	2(4.1)	4(2.7)	13(13.0)		
자격증	특수	3(2.1)	1(1.7)	3(2.5)	1(1.7)	8(8.0)	3	1.816 (0.659)
	특수+일반	2(2.9)	3(2.3)	3(3.5)	3(2.3)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2(1.3)	2(1.1)	1(1.6)	0(1.1)	5(5.0)	3	3.128 (0.441)
	사립	3(3.7)	2(2.9)	5(4.4)	4(2.9)	14(14.0)		
합 계(%)		5(26.3%)	4(21.1%)	6(31.6%)	4(21.1%)	19(100%)		

<표 IV-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수준별 단계별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준별 미술 교과서’는 6명(31.3%), ‘실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교과서’는 5명(26.3%), ‘어려운 미술용어를 설명해 주는 수화로 된 시각자료 미술용어집’은 4명(21.1%), ‘학생들의 다양한 미술준비물 보조’는 4명(21.1%)으로 나타났다. x²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시각적인 미술자료(부교재)가 필요한 미술영역

시각적 미술자료가 가장 필요한 영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3>과 같다. <표 IV-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1위는 '표현영역'은 9명(47.4%), '감상영역'은 7명(36.8%), '미적체험영역'은 3명(15.8%)으로 나타났다.

자유응답문항으로 시각적 부교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들이 제작과정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수화 설명만으로 표현의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며, 표현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에 많은 의견을 나타냈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23> 시각적인 미술자료(부교재)가 필요한 미술영역

	구 분	미적체험	표 현	감 상	합 계	자 유 도	χ^2 (p)
성 별	남	0(1.1)	5(3.3)	2(2.6)	7(7.0)	2	2.836 (0.266)
	여	3(1.9)	4(5.7)	5(4.4)	12(12.0)		
연 령	40세 이하	1(1.3)	4(3.8)	3(2.9)	8(8.0)	2	0.335 (1.000)
	41세 이상	2(1.7)	5(5.2)	4(4.1)	11(11.0)		
경 력	5년미만	0(0.5)	1(1.4)	2(1.1)	3(3.0)	4	3.357 (0.493)
	5-10년미만	0(0.5)	1(1.4)	2(1.1)	3(3.0)		
	10년이상	3(2.1)	7(6.2)	3(4.8)	13(13.0)		
자격증	특수	1(1.3)	6(3.8)	1(2.9)	8(8.0)	2	4.365 (0.150)
	특수+일반	2(1.7)	3(5.2)	6(4.1)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0(0.8)	3(2.4)	2(1.8)	5(5.0)	2	1.079 (0.805)
	사립	3(2.2)	6(6.6)	5(5.2)	14(14.0)		
합 계(%)		3(15.8%)	9(47.4%)	7(36.8%)	19(100%)		

3) 시각적 미술 교재 제작을 위한 개선점.

시각적 미술교재 제작을 한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4>와 같다. <표 IV-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참고할 만한 시청각 수화설명 미술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는 8명(42.4%), '시각적 기자재 활용을 위한 교육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5명(26.3%), '직접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미술프로그램 연수를 받고 싶다'는 4명(21.1%),

‘인터넷 관련된 시각적 교재제작과 관련된 연수를 받고 싶다’는 2명(10.5%)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24> 시각적 미술 교재 제작을 위한 개선점.

구분	시청각 수화설명 미술 프로그램이 개발	교재제작과 관련된 연수를	미술 프로그램 연수	시각적 기자재 활용을 위한 교육적 환경개선	합계	자유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별	남	2(2.9)	1(0.7)	1(1.5)	3(1.8)	7(7.0)	3	2.263 (0.600)
	여	6(5.1)	1(1.3)	3(2.5)	2(3.2)	12(12.0)		
연령	40세 이하	5(3.4)	0(0.8)	2(1.7)	1(2.1)	8(8.0)	3	3.510 (0.363)
	41세 이상	3(4.6)	2(1.2)	2(2.3)	4(2.9)	11(11.0)		
경력	5년미만	2(1.3)	0(0.3)	0(0.6)	1(0.8)	3(3.0)	6	5.261 (0.536)
	5-10년미만	2(1.3)	1(0.3)	0(0.6)	0(0.8)	3(3.0)		
	10년이상	4(5.5)	1(1.4)	4(2.7)	4(3.4)	13(13.0)		
자격증	특수	4(3.4)	0(0.8)	2(1.7)	2(2.1)	8(8.0)	3	1.677 (0.778)
	특수+일반	4(4.6)	2(1.2)	2(2.3)	3(2.9)	11(11.0)		
설립형태	국·공립	2(2.1)	0(0.5)	1(1.1)	2(1.3)	5(5.0)	3	1.264 (1.000)
	사립	6(5.9)	2(1.5)	3(2.9)	3(3.7)	14(14.0)		
합계(%)		8(42.4%)	2(10.5%)	4(21.1%)	5(26.3%)	19(100%)		

4) 미술실기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준비물 실태

미술실기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준비물 상태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5>과 같다.

<표 IV-25> 미술실기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준비물 실태

구분	준비해 오지 못함	약간준비	잘해옴	매우 준비물 잘함	합계	자유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별	남	1(1.1)	5(4.4)	1(1.1)	0(0.4)	7(7.0)	3	1.034(1.0)
	여	2(1.9)	7(7.6)	2(1.9)	1(0.6)	12(12.0)		
연령	40세 이하	2(1.3)	5(5.1)	0(1.3)	1(0.4)	8(8.0)	3	3.903 (0.284)
	41세 이상	1(1.7)	7(6.9)	3(1.7)	0(0.6)	11(11.0)		
경력	5년미만	0(0.5)	3(1.9)	0(0.5)	0(0.2)	3(3.0)	6	3.968 (0.901)
	5-10년미만	1(0.5)	2(1.9)	0(0.5)	0(0.2)	3(3.0)		
	10년이상	2(2.1)	7(8.2)	3(2.1)	1(0.7)	13(13.0)		
자격증	특수	2(1.3)	5(5.1)	1(1.3)	0(0.4)	8(8.0)	3	1.706 (0.890)
	특수+일반	1(1.7)	7(6.9)	2(1.7)	1(0.6)	11(11.0)		
설립형태	국·공립	2(0.8)	2(3.2)	1(0.8)	0(0.3)	5(5.0)	3	3.618 (0.279)
	사립	1(2.2)	10(8.8)	2(2.2)	1(0.7)	14(14.0)		
합계(%)		3(15.8%)	12(63.2%)	3(15.8%)	1(5.3%)	19(100%)		

<표 IV-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약간 준비해 오고 있다’는 12명(63.2%), ‘전혀 준비해 오지 못하고 있다’는 3명(15.8%), ‘잘 해오는 편이다’는 3명(15.8%), ‘매우 준비를 잘 해온다’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미술실기 준비물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미술실기 준비물에 대한 응답결과는<표 IV-26>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채색 재료’는 11명(57.9%), ‘학교에서 모두 준비해 줌’은 5명(26.3%), ‘회화 재료’는 2명(10.5%), ‘만들기 재료’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표 VI-26>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미술실기 준비물

구 분	합 계(%)
만들기 재료	1(5.3)
채색 재료	11(57.9)
회화 재료	2(10.5)
학교에서 모두 준비해 줌	5(26.3)
합 계	19(100)

6) 학생들의 준비물 미지참 원인

학생들이 준비물을 미지참한 원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7>과 같다. <표 IV-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학교예산에 의해 언제나 미술준비물을 교사가 항상 준비해 주었다’는 8명(42.1%),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준비해 오지 않고 있다’는 6명(31.6%),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다’는 4명(21.1%),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표 전달하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학생들이 준비물을 미지참한 원인으로는 학교에서 언제나 미술준비물을 교사가 준비해 주므로 학생들은 준비물 없이 미술수업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27>학생들의 준비물 미지침 원인

	구 분	가정형편 어려움	미술 흥미 부족	의사 소통 문제	미술준비물 은교사가 항상 준비해줌	합 계	자 유 도	x ²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 별	남	2(2.2)	2(1.5)	0(0.4)	3(2.9)	7(7.0)	3	1.152 (1.000)
	여	4(3.8)	2(2.5)	1(0.6)	5(5.1)	12(12.0)		
연 령	40세 이하	4(2.5)	2(1.7)	0(0.4)	2(3.4)	8(8.0)	3	3.210 (0.394)
	41세 이상	2(3.5)	2(2.3)	1(0.6)	6(4.6)	11(11.0)		
경 력	5년미만	2(0.9)	1(0.6)	0(0.2)	1(1.3)	3(3.0)	6	5.651 (0.563)
	5-10년미만	1(0.9)	1(0.6)	0(0.2)	1(1.3)	3(3.0)		
	10년이상	3(4.1)	2(2.7)	1(0.7)	7(5.5)	13(13.0)		
자격증	특수	3(2.5)	2(1.7)	1(0.4)	2(3.4)	8(8.0)	3	2.634 (0.572)
	특수+ 일반	3(3.5)	2(2.3)	0(0.6)	6(4.6)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2(1.6)	1(1.1)	0(0.3)	2(2.1)	5(5.0)	3	0.964 (1.000)
	사립	4(4.4)	3(2.9)	1(0.7)	6(5.9)	14(14.0)		
합 계(%)		6(31.6%)	4(21.1%)	1(5.3%)	8(42.1%)	19(100%)		

7) 학교와 학생간의 준비물 부담

학교와 학생간의 준비물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28>과 같다. <표 IV-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학생이 준비해야 한다’는 15명(78.9%), ‘학교에서 준비해 주어야 한다’는 4명(21.1%)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준비해 주어야 한다는 이유는 <표 IV-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다양한 준비물을 준비함으로써 창의성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8명(42.1%), ‘흥미를 살려 학습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5명(26.3%), ‘정의적 영역(준비성)을 높일 수 있다’는 1명(5.3%), ‘기타의견’은 1명(5.3%)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준비해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표 IV-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술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3명(15.8%),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조사결과 <표 IV-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비물은 ‘학생이 준비해야 창의성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에 가장 많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표 IV-28〉 학교와 학생간의 준비물 부담

구분	빈도(%)	준비해 주어야 하는 이유	빈도(%)
학생이 준비한다.	15(78.9)	학생들이 다양한 준비물을 준비함으로써 창의성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	8(42.1)
		정외적 영역 (준비성)을 높일 수 있다.	1(5.3)
		흥미를 살려 학습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5(26.3)
		기타	1(5.3)
학교에서 준비	4(21.1)	가정형편이 어렵다.	1(5.3)
		미술에 대한 관심이 적다.	3(15.8)
합계			19(100)

8) 장애학생미술 관련 현직교사의 연수

장애학생미술 관련 현직 교사연수 유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29>과 같다. <표 IV-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없다’는 13명(68.4%), ‘있다’는 6명(31.6%)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장애학생미술과 관련된 현직교사의 연수 유무

구분	빈도(%)
있다	6(31.6)
없다	13(68.4)
합계	19(100)

9) 미술 관련 연수를 받지 못한 이유.

미술 관련 현직 교사 연수를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30>과 같다. <표 IV-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기타(일반미술 관련 연수는 많이 있으나 특수미술 관련 연수는 없기 때문이다)’은 9명(47.7%), ‘연수 시기가 맞지 않다’는 3명(15.8%), ‘연수 장소의 지역적 안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2명(10.5%),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강사진 배치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2명(10.5%), ‘연수방법의 다양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2명(10.5%), ‘연수 교육과정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30> 미술 관련 연수를 받지 못한 이유

	구 분	연수 내용 충실도	장소의 지역적 안배	강사진 배치 문제	연수 시기	연수 방법의 다양도	기타	합계	자유 도	x ² (p)
성 별	남	0(0.4)	1(0.7)	1(0.7)	2(1.1)	0(0.7)	3(3.3)	7(7.0)	5	3.494 (0.870)
	여	1(0.6)	1(1.3)	1(1.3)	1(1.9)	2(1.3)	6(5.7)	12(12.0)		
연 령	40세 이하	0(0.4)	1(0.8)	1(0.8)	1(1.3)	2(0.8)	3(3.8)	8(8.0)	5	4.072 (0.727)
	41세 이상	1(0.6)	1(1.2)	1(1.2)	2(1.7)	0(1.2)	6(5.2)	11(11.0)		
경 력	5년미만	0(0.2)	0(0.3)	0(0.3)	1(0.5)	0(0.3)	2(1.4)	3(3.0)	10	6.684 (1.000)
	5-10년 미만	0(0.2)	0(0.3)	0(0.3)	0(0.5)	1(0.3)	2(1.4)	3(3.0)		
	10년이상	1(0.7)	2(1.4)	2(1.4)	2(2.1)	1(1.4)	5(6.2)	13(13.0)		
자격 증	특수	1(0.4)	0(0.8)	1(0.8)	2(1.3)	2(0.8)	2(3.8)	8(8.0)	5	7.153 (0.114)
	특수 +일반	0(0.6)	2(1.2)	1(1.2)	1(1.7)	0(1.2)	7(5.2)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0(0.3)	0(0.5)	0(0.5)	2(0.8)	2(0.5)	1(2.4)	5(5.0)	5	8.712 (0.053)
	사립	1(0.7)	2(1.5)	2(1.5)	1(2.2)	0(1.5)	8(6.6)	14(14.0)		
합 계(%)		1(5.3%)	2(10.5%)	2(10.5%)	3(15.8%)	2(10.5%)	9(47.4%)	19(100%)		

10) 연수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현재 실행되고 있는 미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청각장애 학생 미술 지도에 적절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31>과 같다.

<표 IV-31>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청각장애 학생 미술 지도에 적절한 도움의 유무

	구 분	도움이 되지 않음	약간 도움	많은 도움	합 계	자유 도	x ² (p)
성 별	남	1(1.1)	4(5.2)	2(0.7)	7(7.0)	2	3.394 (0.157)
	여	2(1.9)	10(8.8)	0(1.3)	12(12.0)		
연 령	40세 이하	1(1.3)	7(5.9)	0(0.8)	8(8.0)	2	1.648 (0.603)
	41세 이상	2(1.7)	7(8.1)	2(1.2)	11(11.0)		
경 력	5년미만	0(0.5)	3(2.2)	0(0.3)	3(3.0)	4	2.220 (1.000)
	5-10년미만	1(0.5)	2(2.2)	0(0.3)	3(3.0)		
	10년이상	2(2.1)	9(9.6)	2(1.4)	13(13.0)		
자격증	특수	3(1.3)	5(5.9)	0(0.8)	8(8.0)	2	4.923 (0.058)
	특수+일반	0(1.7)	9(8.1)	2(1.2)	11(11.0)		
설립 형태	국·공립	2(0.8)	3(3.7)	0(0.5)	5(5.0)	2	2.849 (0.210)
	사립	1(2.2)	11(10.3)	2(1.5)	14(14.0)		
합 계(%)		3(15.8%)	14(73.7%)	2(10.5%)	19(100%)		

<표 IV-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약간 도움이 된다’는 14명(73.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3명(15.8%), ‘많은 도움이 된다’는 2명(10.5%)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1)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에 가장 필요한 연수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 연수중 가장 필요한 점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32>과 같다. <표 IV-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특수 아동의 현장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방법’은 9명(47.7%), ‘특수 아동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기 연수’은 5명(26.3%), ‘미술관련 수화를 포함한 수화교육’은 3명(15.8%), ‘학습 자료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연수’은 2명(10.5%)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32>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에 가장 필요한 연수

	구분	다양한 교수 방법	다양한 실기 연수	프로그램 제작 연수	수화 교육	합계	자유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별	남	4(3.3)	2(1.8)	0(0.7)	1(1.1)	7(7.0)	3	1.387 (0.900)
	여	5(5.7)	3(3.2)	2(1.3)	2(1.9)			
연령	40세 이하	5(3.8)	1(2.1)	0(0.8)	2(1.3)	8(8.0)	3	3.444 (0.355)
	41세 이상	4(5.2)	4(2.9)	2(1.2)	1(1.7)			
경력	5년미만	2(1.4)	0(0.8)	0(0.3)	1(0.5)	3(3.0)	6	4.425 (0.790)
	5-10년미만	1(1.4)	1(0.8)	0(0.3)	1(0.5)			
	10년이상	6(6.2)	4(3.4)	2(1.4)	1(2.1)			
자격증	특수	4(3.8)	2(2.1)	1(0.8)	1(1.3)	8(8.0)	3	0.672 (1.000)
	특수+일반	5(5.2)	3(2.9)	1(1.2)	2(1.7)			
설립 형태	국·공립	3(2.4)	2(1.3)	0(0.5)	0(0.8)	5(5.0)	3	2.009 (0.706)
	사립	6(6.6)	3(3.7)	2(1.5)	3(2.2)			
합계(%)		9(47.4%)	5(26.3%)	2(10.5%)	3(15.8%)	19(100%)		

12)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 노하우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들 중에서 나름대로 극복해 낼 수 있었던 본인만의 노하우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V-33>와 같다. <표 IV-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항목별 빈도를 볼 때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시각적 참고작품과 표현방법

을 보여준다’는 8명(42.1%), ‘연수를 통한 학생이해.(미술치료연수, 교수방법에 관한 연수’은 8명(42.1%), ‘일반학교에 사용하는 실기과정 자료집을 이용한다’는 1명(5.3%),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술관교육을 실시한다’는 1명(5.3%), ‘창의적 재료의 연구를 통한 수업연구를 한다’는 1명(5.3%)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변인별 분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VI-33>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 노하우

구분	시각적 참고작품 과 표현 방법 체시	연수를 통한 학생 이해	일반 학교 자료 이용	미술관 교육	수업 연구	합 계	자 유 도	χ^2 (p)	
									관측값(기대빈도값)
성 별	남	3(2.9)	3(2.9)	0(0.4)	1(0.4)	0(0.4)	7(7.0)	4	2.820 (0.844)
	여	5(5.1)	5(5.1)	1(0.6)	0(0.6)	1(0.6)	12(12.0)		
연 령	40세 이하	5(3.4)	3(3.4)	0(0.4)	0(0.4)	0(0.4)	8(8.0)	4	3.445 (0.624)
	41세 이상	3(4.6)	5(4.6)	1(0.6)	1(0.6)	1(0.6)	11(11.0)		
경 력	5년미만	3(1.3)	0(1.3)	0(0.2)	0(0.2)	0(0.2)	3(3.0)	8	10.133 (0.286)
	5-10년미만	1(1.3)	1(1.3)	1(0.2)	0(0.2)	0(0.2)	3(3.0)		
	10년이상	4(5.5)	7(5.5)	0(0.7)	1(0.7)	1(0.7)	13(13.0)		
자 격 증	특수	4(3.4)	2(3.4)	0(0.4)	1(0.4)	1(0.4)	8(8.0)	4	4.385 (0.417)
	특수+일반	4(4.6)	6(4.6)	1(0.6)	0(0.6)	0(0.6)	11(11.0)		
설 립 형 태	국·공립	4(2.1)	1(2.1)	0(0.3)	0(0.3)	0(0.3)	5(5.0)	4	4.062 (0.528)
	사립	4(5.9)	7(5.9)	1(0.7)	1(0.7)	1(0.7)	14(14.0)		
합 계(%)		8(42.1%)	8(42.1%)	1(5.3%)	1(5.3%)	1(5.3%)	19(100%)		

V. 논의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술과 운영실태, 지도방법, 환경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1. 미술과 운영 실태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과 운영 실태 조사결과 미술교육주안점, 미술교육과정, 중복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에서 다음과 같은 교사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미술교육은 창의적 표현능력신장과 정서·인성함양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김운근(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기능위주의 미술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표현에 중점을 둔 수업계획을 세운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40세 이하의 교사는 창의력 신장을 더 중요시 하였고, 41세 이상의 교사는 정서·인성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층면담을 한 결과 40세 이하 교사는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창의적 수업을 어려워 하므로 미술수업에서도 창의적인 표현활동이 되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41세 이상의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융화와 통합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서와 인성함양이 중요하다고 보며 정서활동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인성교육에 관련해서는 추현주(2007)와 김미순(2007)의 연구에서도 미술을 통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학생에게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근감을 표현하는 인성교육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교사들은 대부분 미술교과 운영에 있어서 미술교육의 주안점을 창의성과 정서·인성함양에 두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교수자료 활용방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천적인 면에서도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개정된 미술교육과정은 청각장애의 특수성을 약간 반영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개정된 미술교육과정이 청각장애 학생들의 미술수업을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청각장애 미술 교육과정이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그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개정된 미술교육과정에서 구체적인 모형으로 제시하지 못 함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 교육과정에 대해 이현수(2006), 김윤근(2003)이 말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각장애학생들의 특수성들이 반영된 교육과정의 수정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학교에 따라 경험위주의 교육과정이나 정서적 치료 및 지역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청각장애 교육과정 지침사항들이 만들어져야 함을 시사해 준다.

셋째, 교수적 수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교수방법이라고 하였으며, 교수적 수정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시간부족과 자료구입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러한 청각장애학교의 물리적, 재정적인 교육환경의 문제는 이윤이(1989), 김윤근(2003), 임정규(2001)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현장에서 미술교사들이 겪는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물리적 교육환경 중 교구와 교재는 이정순(1981)과 임정규(2001)의 연구에서 말한바와 같이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이해시키는데 가장 필요하며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재정비 되어야 하는 환경요소들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미술교육환경의 부족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끼칠 수 있는 언어 및 정의적 영역에 따른 결함들을 볼 때 단순히 미술교육 환경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겪게 되는 더 큰 차원의 문제점들임을 알 수 있었고, 보다 높은 학교차원의 물리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중복장애학생 수는 전체의 10%~30%로 교사들은 대부분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들의 개별화 교육방법으로는 시간조절과 부분적인 도움 그리고 수준별 방법 제시 등으로 교수적 수정을 하고 있었다. 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개선점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흥미유발 할 수 있는 시각교재, 충분한 개별화 교육시간 등이 빈도가 높았다.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윤근(2003)에서도 지적하였고, 직관적 경험중심의 교육은 최향섭(2000), 신나리(2007)이 말한 바와 같이 중도·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방법으로 효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복장애 개별화 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 실천력과 학생 개개인에게 써야 할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미술과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현장에

서 실제 겪게 되는 문제들은 이런 높은 인식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나, 교사들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실천의 미비 등으로 미술교과 운영에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미술과 지도방법 실태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과 지도방법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결과 표현과 감상 영역의 지도방법, 감상 수행평가방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감상영역 지도 시 학생들의 미술용어 이해 정도는 대부분 낮다고 보았으며 그 원인은 흥미유발을 위한 시각자료 체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과 학생들의 언어능력의 부족을 들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효과적인 교육 방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효과적인 감상영역 지도를 위해서는 시각자료의 활용과 직접체험기회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들었다.

감상교육을 체험활동으로 구성함으로써 키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박선영(2008), 조은성(2009)이 말한 바와 같이 인지기능발달 뿐 아니라 감성함양 교육으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감상교육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교육과학기술부, 2008)하도록 하는 지침만 마련해 놓고 있어 청각장애 학생들이 직접체험의 감상기회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이런 체험위주의 수업을 하기 위해 청각장애 학생들의 토론 감상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설명하는 구체적인 미술용어에 대한 수화설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지침은 나와 있지 않아 실제 체험위주의 미술 감상 수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감상교육의 미술교육 방향이 활용 중심으로 미술작품을 맥락적으로 해석 할 수 있도록 감상(교육과학기술부, 2008) 하도록 되어있어 지역의 미술문화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미술을 체험함으로써 청각장애학생들의 부족한 감상 체험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미술교사들은 표현활동에서 자율성과 통제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나 이윤이(1989)와 김윤근(2003)에서 제기한 창의성 부족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표현과 상호소통의 어려움과 시각자료 제시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었다. 청각장애 학생들의 작품에 창의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소통과 의사소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교사의 소지 자격별로 보았을 때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들은 시각자료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보았고 일반교사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교사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더 크게 들고 있었다. 이는 창의성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숙(1991), 임정규(2001), 김윤근(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전문적 실기능력과 수화능력이 필수적이며 청각장애 학교에 미술교사들의 자격증은 일반자격증과 특수자격증 모두 가진 교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소지 자격별로 심층면담을 한 결과 역시 학생의 창의적 활동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며 교수자로서의 제한성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예시자료를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워크숍을 교사연수에 포함하면 현장의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일반 자격증과 특수자격증을 가진 미술교사의 비율은 57.9%로 미술적 전문실기능력을 갖춘 교사의 숫자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특수자격증을 가진 미술교사와 특수와 일반자격증을 가진 교사 모두에게 자격증에 따라 부족한 수화와 미술관련 전문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법으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는 이윤이(1989), 임정규(2001), 김윤근(2003)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현장에 실제 적용한 권영자(2000), 박미혜(2006)의 연구에서처럼 교사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에 많은 영향을 주며 긍정적 교육적 효과가 있으므로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감상영역의 수행 평가방법으로 표현영역과 감상영역을 연계적으로 지도하여 평가하는 실기법, 관찰법, 토론법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실기법과 관찰법은 표현활동을 하는 가운데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과정과 결과 태도를 평가하는 평가방법으로 학생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재는 평가 방법인 반면에 다양하고 종합적인 감상능력이나 미술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는 토론법과 같은 수행평가 방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미술 수업은 전영남(2005)이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언어능력과 어휘습득에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토론법과 연구보고서와 같은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을 활용(교육과학기술부, 2008)하여 청각장애 학생들의 종합적 미

술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감상평가의 어려움으로 미술용어의 어려움과 의사소통의 문제로 원활한 수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청각장애를 가진 교사들은 스스로 학생들의 눈높이를 낮추거나 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미술수행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장애 유무에 따라서 의사소통과 수화 전문성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김윤근(2003)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교사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하는 교사들의 모임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수화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 미술과 교육환경 실태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과 교육환경 대한 분석결과 미술자료, 준비물, 연수등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사들은 미술활동 시 가장 필요한 자료로서 수준별 미술교과서, 실기프로그램, 시각자료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중 특히 표현활동과 감상영역은 시각적인 부교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표현과 감상역역의 특성상 표현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임정규(2001), 김윤근(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시각적 미술부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참고 할 만한 시청각 수화 설명 미술프로그램과 시각적 기자재 활용을 위한 교육적 환경 등이 개선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미술실기 준비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에서 교사가 항상 미술 준비물을 준비해 주고 대부분 학생들은 준비물을 약간 준비해 오고 있었다. 결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준비물인 채색재료(57.9%) 위주의 미술 활동에 국한되기 때문에 미술작품들은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준비물 미지참의 이유는 학교에서 항상 준비해주거나 경제적형편의 어려움 때문으로 나타났는데, 이윤이(1989), 이미숙(1991), 임정규(2001), 김윤근(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직도 학생들이 준비물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준비물은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2007)이 신설된 이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되면서 학생들은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미술 재료를 준비 못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준비해 주고 있는 채색재료 위주의 준비물은 단순한 기능위주의 미술수

업이 진행되어 결국 창의성 없는 미술 작품이 나오게 되고 학생들은 미술에 대한 흥미가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창의성 있는 미술작품에 임할 수 있도록 우선 미술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교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미술재료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미술재료를 구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원방법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미술교사들의 연수는 일반미술에 대한 연수만 있었고 특수미술에 관련된 연수는 특별히 받아 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특수미술교사에 대한 교육적 연수 지원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김윤근(2003)이 연구한 조사에서도 지적한 문제점들이 아직도 현장에서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실행되는 연수들은 청각장애 학생 미술 지도시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하였고, 청각장애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연수로는 다양한 교수방법과 실기에 관한 연수를 지적하였다. 한편,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때 극복해 낼 수 있었던 노하우로는 교사연수와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표현 방법을 보여 주는 방법 등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의 청각장애학교 19개교의 중학교 미술담당 교사 1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심층질문지를 통해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조사결과와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미술교육을 창의적 표현능력신장과 정서·인성함양에 주안점을 두어 긍정적 인식은 강했지만 구체적인 교수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2007년 개정된 미술교육과정에 청각장애 특수성이 조금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수적 수정 시 어려움으로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반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업하므로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수방법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그리고 중복장애학생수의 비율은 10-30%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대한 질문에는 개별화 교육은 잘 실시하고 있으나, 교수적 수정 방법으로 시간조절과 부분적 도움만 실시하는 문제점이 있어 질 높은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지도방법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결과 감상영역 지도 시 미술용어의 어려움과 언어능력 및 체험 기회가 부족하므로 미술관 직접체험의 기회 확대와 시각적 자료가 다양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표현 영역 지도 시 통제와 자율성을 혼용하여 가르치고 있지만 교사의 상호 소통과 시각자료 제시가 미흡하여 창의성이 떨어지므로 보여 주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감상수행평가는 어려운 미술용어와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기법 위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개선점으로 학생들이 느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 주고 직접체험을 통한 감상 기회

확대와 영역간의 연계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교육환경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결과 미술활동 지도 시 가장 필요한 미술자료는 수준별 미술 교과서와 실기 프로그램 교과서이며, 표현영역과 감상영역을 지도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수화 설명 미술프로그램과 시각적 기자재 활용을 위한 교육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준비물 상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이 조금 준비하거나 학교에서 채색재료 위주로 준비해 주고 있지만 창의성 있는 미술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미술재료는 학생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알 수 있었다. 특수 미술현직 연수는 특수 미술만을 위한 연수가 없으므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수방법과 실기에 대한 연수가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의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교과를 지도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므로 미술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성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각적 프로그램이나 수화설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학교 미술연수 지원과 물리적 환경을 재정비 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교사의 장애 유무에 따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르치는 교수방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조사연구이지만 심층질문을 통해서 변인별로 교사들의 실제적인 생각들을 알아 본 것은 의의가 있었으나 연구의 제한점으로 심층질문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일반화 하기에는 표집대상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청각장애 중학교 미술 교사 면담 케이스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보완 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권영자(2000). 영상매체를 통한 시지각 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이 청각장애아동 창의적 표현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현장특수교육연구보고서, 특수교육총연합회.
- 교육과학기술부(2007).교육과정 총론,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교육과학기술부(2008).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해설 총론Ⅳ,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160호.
- 교육과학기술부(2010), 특수교육통계
- 교육인적자원부(2007).미술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13호).
- 교육과학기술부(2008).특수학교교육과정해설(Ⅲ),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3호
- 김윤근(2003). 청각장애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적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유리(2005).정신지체 특수학교 미술교과 교육 운영실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영린(2003).시각장애학교 미술교과 수업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순(2007). 청각장애아동의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순(2004).특수학급의 미술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초등학교 105개의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 김동연(1994). 청각장애 미술과 교육.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미혜(2006).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ICT 활용 중학교 미술교육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선영(2008). DBAE이론에 기초한 청각장애학생의 미술과 지도모형개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박정술(2004). 도예활동 프로그램이 청각장애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 효과.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서동희(2001).집단미술치료가 청각장애아의 정서 함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 신나리(2007).중복장애의 자기표현에 대한 한국화 매체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신묘숙(2007).일반 고등학교 미술교육의 현황조사와 개선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경희 (2007). 장애아를 위한 ‘통합적 미술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유정현 (2002).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아동을 위한 점토조형 학습프로그램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 유혜영(2010).색채의 공감각에 의한 색채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규선,김동영, 전성수(1994).미술교육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미숙(1990).청각장애아의 미술과 학습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승환(2007).지체부자유학교 중학부 미술교과 감상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윤이(1989).청각장애에 대한 바람직한 미술교육방안의 모색(전국 농아학교의 미술 교육환경 실태조사에 따른).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윤(2006).정신지체 특수학교 미술교과 운영 실태 조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순(1981).청각장애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현수(2006).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실행 모형 개발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임정규(2001). 청각장애아의 미술교육의 현황과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 교육과학기술부.
- 장해경(2007).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으로서 공예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청각장애 고등학생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영남(2005). 다양한 활동이 청각장애 유아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순은(2009). 미술관 활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중학교 미술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은성(2009). 체험활동 수업을 중심으로 한 미술교육과정안 개발연구
(중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향숙(2007). 정신지체 특수학교 미술교육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초등부대상).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향섭(2000). 감각지체부자유 학생 교육의 방향. 연구자료, 국립특수교육원.
- 최환호(1984). 청각장애아의 회화 특징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추현주(2007). 비언어적 미술치료가 청각장애아동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 한기민(2003). 중학교 미술수업의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충남지역 중학교 미술교
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부 록

(설 문 지)

청각장애학교 중학교 미술교과 운영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수교육의 발전과 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애쓰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학생 지도와 학교의 업무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선생님께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설문지는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교육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청각장애 미술교육 개선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솔직한 답변은 본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순수하게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설문지는 6월 15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동봉된 봉투를 사용하여 반송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며, 선생님께서 평소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에 대해 느끼신 점이나 사실들에 대해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귀중한 답변을 기다리며 특수교육의 발전과 아울러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장혜원 드림

연락처 : 2622511@hanmail.net

062-264-6996

010-3618-5364

청각장애학교 중학교 미술과 교육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설문지

I. 미술교사의 개인적인 배경.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남 ②여

2.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40세 이하 ②41세 이상

3. 선생님의 특수교육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5년 미만
②5년 이상 - 10년 미만
③10년 이상

4. 선생님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자격과 전공은 무엇입니까?
해당영역에 ○표시 해주세요.
① 특수교육전공
② 일반중등미술+특수교육전공

5.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의 설립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국, 공립 학교
② 사립학교

II. 청각장애학교학교 미술과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선생님께서는 청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의 목적과,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과정의 이수 ④ 정서와 인성 함양
② 취업이나 진로 ⑤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
③ 교양 함양

2. 청각장애 학교의 미술과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 ① 교수방법 ② 학습환경
- ③ 교수자료(교과서) ④ 교사의 전문성

3. 2008년 개정된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많이 반영 되었다.
- ② 약간 반영 되었다.
- ③ 거의 반영 되지 않았다.
- ④ 잘 모르겠다.

4. 청각장애학교 특수성이 반영된 미술 교육과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수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교수적 수정을 하실 때 가장 어려우신 점은 무엇입니까?

4-1. 교수적 수정 시 가장 어려우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다
- ② 청각장애학교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과정이 없다
- ③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 ④ 일반교육과정에 맞추어 수업하므로 교수적 수정이 필요없다.

4-2. 어떤 교수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전자미술교과서의 필요성
- ② 교사의 부분적 도움
- ③ 교수방법의 수정(창의성을 높이기 위한방법, 도입과정의 시각화등)
- ④ 일반교육과정에 맞추어 수업하므로 교수적 수정이 필요없다.

5. 최근 청각장애학교에는 중복장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교의 미술수업을 받는 중학교 학생들 중 중복장애 학생의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미만
- ② 10%-30%이하
- ③ 31%-40%이하
- ④ 41%-50%이하
- ⑤ 51%이상

6. 중복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실시하고 있다.
- ② 상황에 따라 실시 할 때도 있고 실시하지 못 할 때도 있다.
- ③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중복장애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이 되기 위한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① 충분히 개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미술시간이 필요하다.
- ②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③ 중복학생에게 맞는 수업방법에 대한 교사연수가 필요하다.
- ④ 학생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시각적 교재가 필요하다.

8.그밖에 중복장애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적 수정이나 교육적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겠습니까?

- ① 시간조절과 부분적 도움을 준다
- ② 능력에 맞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단계별 프로그램)
- ③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친숙한 재료로 동기유발을 한다.
- ④ 교사자신의 교육적 노하우가 부족한 것 같다.

Ⅲ. 청각장애학교 중학교 미술과 지도방법 실태

9. 감상영역의 지도 시 교사가 설명해 주는 미술용어나 설명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아래 사항 중 무엇입니까? ()

- ① 이해도가 높다.
- ② 보통이다.
- ③ 이해도가 낮다.
- ④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10. 감상 영역의 지도 시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생의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미술 감상 교육의 어려움이 있다.
- ② 교사의 흥미를 유발 시키는 시각적인 자료나 직접체험의 기회가 부족하다.
- ③ 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수방법 적용능력이 부족하다.
- ④ 학생들이 대부분 미술감상 교육에 대한 흥미도가 낮다.
- ⑤ 기타()

11. 감상영역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 ① 미술관이나 전시회 관람을 통한 직접체험의 기회를 높여주어야 한다.
- ② 시각자료나 충분한 인터넷 시각자료를 제시하여 인터넷을 통한 감상교육을 활성화 해야한다.
- ③ 미술수화 용어집이나, 대체의사소통판 등을 이용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적 자료가 필요하다.
- ④ 문장위주의 감상교육이 아닌 표현활동과 연계된 수업진행을 한다.

12 표현활동 영역을 지도할 때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계발을 위한 선생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

- ① 통제와 자율성을 적절히 혼용하고 있다. (주제는 정해 주되, 표현 방법 재료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학생의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나 학생들이 잘 해내지 못 해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 ③ 모든 것을 정해 주고 참고 자료를 주어 완성의 방향을 제시 해 준다. (비슷하게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13. 청각장애 학생들의 미술작품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 ① 상상을 자극하는 시각자료의 제시가 미흡하기 하다.
- ② 교사와 수업내용에 대한 의사표현의 상호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 ③ 학생들이 미술은 기능위주의 모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 ④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가 미흡하다.

14.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미술지도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② 다양한 재료와 주제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사고전체에 대한 사물을 보는 방법인 지각능력을 키워 줘야한다.
- ④ 비평적인 사고와 탐구심을 키워줘야 한다.

15.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지도방법이 있다면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

- ① 개별지도를 해준다.
- ② 다양한 시각적 참고작품과 표현재료와 표현방법의 자율성을 준다.
- ③ 시각적 프로그램자료를 직접 제작하여 제시해 준다.
- ④ 일반아동과 같은 지도방법을 하므로 특별한 지도방법이 없다.
- ⑤ 수화와 문자자료를 이용한 지도를 해준다.

16. 감상 영역의 수행평가 시 활용하고 계시는 평가방법을 1, 2, 3순위 순서로 고르신다면 아래 사항들 중 무엇입니까?()

- ①관찰법, ②감상문 ③토론법 ④포트폴리오 ⑤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법 ⑥실기법 ⑦면접법 ⑧구술시험 ⑨연구보고서

17. 감상 및 표현활동의 평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 ①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 ② 활용을 하려 하나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힘든 수준이다.
- ③ 활용을 하려 하나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 ④ 시수의 부족 등으로 활용할 시간이 없다.

18. 감상평가가 원활 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는 원인 중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 ① 실기위주의 수업을 하므로 감상할 시간이 없다.
- ② 어려운 미술용어를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③ 학생들이 다양한 수행평가 방법으로 감상하는 방법을 모른다.
- ④ 학생들이 글로 쓰는 감상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 감상평가가 개선되기 위한 방법 중 선생님의 생각은 아래 사항 중 무엇입니까?
()

- ① 표현활동과 감상영역과의 연계성, 미적체험과 표현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한다.
- ② 어려운 미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교재가 필요하다.
- ③ 직접체험을 통한 미술품감상의 기회가 많아지도록 한다.
- ④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작을 통한 시범을 보여준다.
- ⑤ 학생들이 자신이 느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을 안내해 준다.

20. 감상 평가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애로사항이나, 감상 평가를 하시면서 개선될 방법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 ② 청각장애 학생에게 맞는 감상평가 자료가 부족하다.
- ③ 미술관 견학을 통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부족하다.
- ④ 기초학력의 부족하여 감상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⑤ 기타

IV.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교육환경 실태

21. 미술활동 지도 시 가장 선생님께서 필요한 미술자료는 무엇입니까?
()

- ① 실기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교과서
- ② 어려운 미술용어를 설명해 주는 수화로 된 시각자료 미술용어집
- ③ 수준별 단계별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준별 미술교과서
- ④ 학생들의 다양한 미술준비물 보조

22.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시각적인 미술자료(부교재)가 필요한 미술영역을 골라주시고, 특별히 그 영역에서 부교재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

- ① 미적체험 ② 표현 ③ 감상

(시각적 부교재가 필요한 이유:

23. 선생님께서 시각적 미술 교재 제작을 한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

- ① 참고할 만한 시청각 수화설명 미술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 ② 인터넷 관련된 시각적 교재제작과 관련된 연수를 받고 싶다.
- ③ 직접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미술프로그램 연수를 받고 싶다.
- ④ 시각적 기자재 활용을 위한 교육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4. 미술실기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준비물 상태는 어떻습니까?
()

- ① 전혀 준비해 오지 못하고 있다
- ② 약간 준비해 오고 있다.
- ③ 잘 해오는 편이다.
- ④ 매우 준비를 잘 해온다.

25.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미술실기 준비물은 어떤 것들입니까?

- ① 만들기 재료
- ② 채색 재료
- ③ 회화 재료
- ④ 학교에서 모두 준비해줌

26. 미술시간에 준비물을 지참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 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준비해 오지 않고 있다.
- ②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다.
- ③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표 전달하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 ④ 학교예산에 의해 언제나 미술준비물을 교사가 항상 준비해 주었다.

27. 학교와 학생간의 준비물 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선생님께서는 청각장애학교 미술교육 연수의 내용으로 어떤 분야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 ① 특수 아동의 현장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교수방법
- ② 특수 아동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기 연수
- ③ 학습 자료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 연수
- ④ 미술관련 수화를 포함한 수화교육.

32. 청각장애학교에 개선되어야 할 점들 중에서 나름대로 극복해 낼 수 있었던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교수방법에 대한 어려움으로 시각자료를 직접 구입하셨다 거나, 연수 등을 통한 교수법 습득 등)

- ①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시각적 참고작품과 표현방법을 보여준다.
- ② 연수를 통한 학생이해.(미술치료연수, 교수방법에 관한 연수)
- ③ 일반학교에 사용하는 실기과정 자료집을 이용한다.
- ④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술관교육을 실시한다.
- ⑤ 창의적 재료의 연구를 통한 수업연구를 한다.

심층질문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한 장혜원 입니다.

보내주신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교육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문항 중에서 심층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또 귀찮게 해드
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질문지에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만 적어 보내주신다
면 제 논문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층면담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직접적이라서 응답하기 곤란하신 내용들도 많
을꺼라 생각합니다. 성심껏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제 연구논문에 심층질문 내용으로 쓰일 예정이오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7월 30일**까지 답변하여, 환송봉투에 담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장혜원 드림

010-3618-5364

2622511@hanmail.net

A교사의 심층질문지

질문1)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청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의 주안점을 **창의적 표현능력의 신장**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특히 왜 **창의적 표현능력의 신장**에 주안점을 두시는지 개인적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질문2) 감상및 표현활동의 **수행평가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 하나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힘든 수준이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의 어떤 점 때문에 적용하기 힘든지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그 외에 학생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개인적 의견 부탁드립니다.(실기법, 관찰법 수행평가 방법을 하실 때 어려움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질문3) 청각장애학교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서 교수적 수정에 어려움에 대한 설문내용에 교수적 수정 시 가장 어려우신 점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답변해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수적 수정 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 다른 일반미술에서 쓰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신 다거나 **부족한 시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4) 청각장애 학생들의 미술작품이 **창의성이 부족한 이유**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각자료의 제시가 미흡**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시각자료를 위해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나 관심을 써주는지,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활용하시는 시각자료는 무엇인지, 주로 시각자료는 어디에서 구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시각자료 제시가 미흡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개인적인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5) 감상평가가 원활하게 이뤄 지지 못하는 원인을 **실기위주의 수업을 하므로 감상할 시간이 없다**에 응답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사립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려운 미술용어를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감상평가가 원활하게 이뤄 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과 어려운 미술용어에 대한 의사소통에는 애로사항 없이 수업이 잘 이루어 지나요?

그리고 실기위주의 수업을 전체 수업 중 몇% 정도 분배를 하시고, 감상평가 할 시간이 없게 된 이유가 아이들의 참여도, 준비도...등등 기타 어떤 이유때문인지 개인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B교사의 심층질문지

질문1)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청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의 주안점을 **정서와 인성함양** 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특히 왜 정서와 인성함양 신장에 주안점을 두시는지 개인적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질문2) 청각장애학교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서 교수적 수정에 어려움에 대한 설문내용에 교수적 수정 시 가장 어려우신 점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교수적 수정 시 많은 시간이 필요 하실 텐데, 다른 일반미술에서 쓰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신 다거나 **부족한 시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적 수정 시 시간이 부족한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공문처리, 시각자료의 미비....등등)

질문3) 청각장애 학생들의 미술작품이 **창의성이 부족한 이유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이들에게 수화이외에 다른 의사소통 도구는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어떤 미술내용을 설명 하실 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C교사의 심층질문지

질문1)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청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의 주안점을 정서와 인성함양 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특히 왜 정서와 인성함양 신장에 주안점을 두시는지 개인적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질문2) 감상 및 표현활동의 수행평가에 대해서 적절히 잘 이루어 지고 있다.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대부분 교사들이 활용을 하려하나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힘든 수준이다. 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셨는데, 수행평가가 잘 이뤄 질 수 있었던 본인만의 노하우나 학생들의 참여도 등,,,, 잘 이루어 질 수 있었던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질문3) 감상평가가 원활하게 이뤄 지지 못하는 원인을 어려운 미술용어를 학생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응답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의 미술용어 이해 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아이들이 꼭 알아야할 미술용어는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D교사의 심층질문지

질문1)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청각장애학생의 미술교육의 주안점을 정서와 인성함양 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특히 왜 정서와 인성함양 신장에 주안점을 두시는지 개인적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질문2) 감상 및 표현활동의 수행평가에 대해서 적절히 잘 이루어 지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활용을 하려하나 학생들에게 적용하기 힘든 수준이다.라고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수행평가가 잘 이뤄 질수 있었던 본인만의 노하우나 학생들의 참여도등,,, 잘 이루어 질 수 있었던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질문3) 청각장애 학생들의 미술작품이 창의성이 부족한 이유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이들에게 수화이외에 다른 의사소통 도구는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어떤 미술내용을 설명 하실 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4)감상평가가 원활하게 이뤄 지지 못하는 원인을 어려운 미술용어를 학생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응답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의 미술용어 이해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아이들이 꼭 알아야할 미술용어는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질문5) 교수적 수정을 하기 위해 시각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시각 자료는 주로 어떤 통로로 구입하시고, 학교에서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십니까?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 전공	학 번	20088023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장혜원 한문 : 張慧苑 영문 : Jang hye won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2번지 두산위브 아파트 101동 801호				
연락처	E-MAIL : 2622511@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청각장애중학교 미술과 교육운영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영어 : The teacher's recognition for the actual administration of art education in special middle schools with Hearing impairment.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2010년 12 월 2일

저작자: 장혜원(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